Publicité Et Nous

FLÂNEUR FOREVER

HERMÈS
PARIS

에르메스 코리아
02 542 6622
Hermes.com

Style 조선일보

OCTOBER 2015
vol.132

RALPH LAUREN
Collection

THE SHEARLING COLLECTION RALPHLAUREN.COM

BVLGARI.COM

BVLGARI

ROMA

SERPENTI

Breguet
Depuis 1775

Breguet, the innovator.

Invention of the Breguet balance spring, 1795

The balance spring gives time rhythm and sets its rate – the key to a watch's precision. With its many patented innovations, the Tradition 7047PT with fusee tourbillon pushes the limits of precision time-keeping by combining the accuracy of the Breguet balance-spring's terminal curve, conceived in 1795, and the anti-magnetic properties of silicon. History is still being written…

브레게 직영 부티크 - 롯데 에비뉴엘 2층 +82 (0)2 2118 6480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2층 +82 (0)2 3438 6218 갤러리아 백화점 EAST B1층 +82 (0)2 6905 3571
공식지정 판매처 - 신세계 센텀시티 2층 드로어써클 +82 (0)51 745 1350 워커힐 면세점 B1층 +82 (0)2 450 6564 신라 면세점 서울점 2층 +82 (0)2 2230 1233
신라 면세점 제주점 2층 +82 (0)64 710 7352 WWW.BREGUET.COM

MONT BLANC

Montblanc M and Hugh Jackman

몽블랑 M과 휴 잭맨

Crafted for New Heights

This new iconic writing instrument expresses Montblanc's fine writing culture in the distinctive design language of Marc Newson. The black precious resin and its minimalist understatement disguise some intriguing details. The unique magnetic closing mechanism automatically aligns the cap with the Montblanc emblem on the perfectly flat "plateau". In the launch edition, the Au585 gold nib bears the designer's initials. Visit Montblanc.com

Every day the planets bring about their own revolution, in the shape of the fascinating rotation of the heavens - true poetic astronomy. Van Cleef & Arpels has captured this perfect mechanism in its creations : the course of the sun, the ballet of the stars, the enchantment of a glittering sky. Measuring time takes on a sense of wonder and escape.

Midnight Planétarium
Poetic Complication

Complication watch, automatic mechanical movement, pink gold case.
Mars, Mercury, Venus, Jupiter, Saturn and Earth revolve around the Sun in real time.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갤러리아 EAST
신세계 강남점 – 본점 – 센텀시티
롯데 에비뉴엘 월드타워
www.vancleefarpels.com - +82 798 852 1612

18

40

표지에 등장한 랄프 로렌 2015 F/W 컬렉션 이미지 속 제품은 크림 컬러 하이 빅토리안 칼라 레이스 롱 드레스와 시어링 소재를 사용한 퍼 베스트다. 아메리칸 웨스턴 스타일을 현대적이고 우아하게 구현해낸 최초의 디자이너로 평가받는 랄프 로렌은 2015 F/W 시즌, 나비호 패턴을 연상케 하는 그래픽 블랙 비딩을 더한 드레스와 케이프, 자수를 놓은 앵클 부티, 카우보이 모자와 프린지 장식 가방에 에스닉한 장신구를 매치해 보헤미안 스타일을 완벽히 재현했다. 문의 02-545-8200

30

16

18 **2015 WATCHES&WONDERS** 세계적인 시계 박람회인 SIHH(Salon de International Haute Horlogerie)의 아시아 버전인 워치스 앤 원더스(Watches & Wonders)가 올해 3회를 맞았다. 지난 9월 30일부터 4일간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오직 초대받은 사람만이 참석해 하이엔드 워치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독보적인 시계 행사다. 까르띠에, 몽블랑 등 리치몬드 그룹의 브랜드부터 리차드 밀 같은 독보적인 워치 브랜드까지, 12개 브랜드의 매력을 〈스타일 조선일보〉가 직접 확인했다.

20 **BRILLIANT CHARISMA** 어둠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드라마틱한 얼굴로 매혹적인 뉴앙스를 풍기는 하이 주얼리 컬렉션.

22 **A FEW GOOD BAGS** 갖고 싶다. 남자의 손에, 어깨에 무심하게 자리한 신상 백에 눈길이 머무는 이유.

24 **GO SPORTS** 요트, 레이싱, 다이빙까지, 정밀한 계측이 필요한 스포츠의 멋진 파트너가 되어줄 기계식 워치. 완성도 높은 무브먼트를 장착한 시계의 매력을 익스트림하게 느낄 수 있는 스포츠 워치 컬렉션.

26 **PERFECT CUSHION** 선크림을 바를 필요도 없을뿐더러 가볍게 도장을 찍듯 톡톡 두드려주기만 하면 완벽한 피부로 연출해주니 가히 여자를 위한 최고의 발명품이 아닐 수 없다. 여성들이 바라는 베이스 메이크업의 모든 것을 담은 쿠션 파운데이션의 열풍이 아직 유효한 이유.

28 **EDITOR'S PICK** 쇼핑 욕구가 샘솟는 새로운 시즌이다. 그만큼 눈길을 사로잡는 신제품도 가득하다. 〈스타일 조선일보〉 기자들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이달의 뷰티 신상 리스트.

30 **IN LATE AUTUMN** 1970년대 레트로 스타일을 기미한 뉴 룩. 슬림한 라인, 심플한 디자인, 고급스러운 소재로 기품 있고 단정한 스타일을 완성했다.

38 **NEW NEST ON HISTORY** 수천 년간 이어온 로마의 유구한 역사와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탈리아의 기념비적인 건축물에 새로운 둥지를 튼 펜디. 이탈리아의 문화유산을 향한 이들의 경의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39 **WINTER CHIC** 현대적이면서도 유행을 타지 않는 심플한 디자인 덕에 5년, 10년을 두고 입을 수 있는 몽클레르. 다운 점퍼에 '럭셔리' 이미지를 부여하고 실용성과 가벼움, 우아함이라는 3박자의 완벽한 조화로 겨울 휴양지는 물론 도심에서도 사랑받는 몽클레르에서 제안하는 하이엔드 윈터 컬렉션.

40 **행복한 식사, 디자인에 요리를 담다** 디자이너는 부엌에서 영감을 얻는다? 디자인은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부엌과 식사에서 디자이너의 명작이 탄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먹고 마시는 인류의 단순한 행위를 통해 빛나는 영감을 받은 디자이너의 작품을 통해 '부엌'의 의미를 되새겨보자.

Style 조선일보

Issue.132 October 2015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욱**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헌**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박승현 shpark@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제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페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격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십시오. stylechosun.com

Jewel
HIGH TOUCH

한 송이 꽃을,
섬세한 자연의 숨결을
가슴에 품게 하는
브로치 컬렉션.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그레이 컬러의 머더오브펄로 꽃잎을, 다이아몬드로 꽃술을 세팅한 로즈 드 노엘 클립 4천6백만원대,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코스모스의 실루엣을 그대로 살린 코스모스 클립 3천2백만원대 모두 **반클리프 아펠.** 잠자리 모티브를 정교하고 세심하게 완성한 인챈트 드래곤플라이 브로치 7백만원대 **티파니.** 16mm의 마베 진주를 네모난 실버 보디에 세팅한 브로치, 리본 모티브 실버 보디에 3개의 진주를 세팅한 브로치 각 50만원대 모두 **타사키.** 에디터 **배미진**

포토그래퍼 **박건주**

Fashion
LATE FLOWERING

매 시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슈 중 하나인 꽃. 스프링 시즌의 플라워 패턴이 따스한 봄바람에 날리는 파스텔 무드의 싱그러운 꽃잎이라면, 열매가 여물고 낙엽이 흩날리는 겨울엔 들판에 핀 팬지나 책 사이에 끼워둔 말린 장미 꽃잎처럼 컬러가 깊고 그윽한 플라워 패턴이 2015 F/W 런웨이 곳곳에 피어난다. 먼저 누구에게나 가슴 뭉클한 존재, '어머니'에서 영감받은 **'돌체앤가바나'** 컬렉션에서는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장미꽃을 선물하는 이탈리아의 전통에서 영감을 얻어 빨간 장미를 메인 테마로 선보였다. 모델들은 탐스럽게 핀 아름다운 장미를 한아름 안거나 가방에 풍성하게 꽂아 등장했으며, 몸의 실루엣을 드러내는 레이스 원피스와 재킷, 퍼 위에 자수, 아플리케, 주얼 장식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표현한 장미꽃 모티브가 인상적이었다. 프린트의 귀재 **'마르니'**는 또 어떠한가. 거칠고 사나운 방랑자의 모습을 연출한 마르니는 꽃무늬의 마틀라세 자카드에 자수를 놓은 펠트와 벨벳 장식을 더해 원초적인 소중함이라는 개념을 표현했으며, 플라워 패턴을 몽환적인 컬러와 거친 텍스처로 처리해 깊이 있고 엄숙한 룩을 완성했다. **'구찌'** 역시 몽환적인 플라워 패턴을 섬세한 레이스, 플리츠 디테일, 가죽 소재 등 곳곳에 적용했는데, 특히 남성복을 연상케 하는 수트에 더한 빈티지하고 큼직한 플라워 패턴은 남성적인 느낌을 한층 여성스럽게 풀어낸 핵심 디테일이다. **'발렌티노'**는 미술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뮤즈인 셀리아 버트웰과 컬래버레이션해 탄생시킨 플라워 프린트로 주목받았다. 그래픽적인 블랙과 어우러진 레드 · 블루 · 핑크 플라워의 조화는 관능적인 느낌을 풍기는 동시에 힘과 깊이를 더해 우아한 여성스러움을 전했다. 에스닉한 보헤미안 무드가 가득했던 **'버버리 프로섬'**의 거의 모든 룩에는 플라워가 키 패턴으로 등장했다. 어두운 계열의 컬러 팔레트를 사용하고 레이스, 자수, 패치워크 등의 기법을 통해 여행길에서 만난 야생화처럼 자유롭고 에스닉한 느낌으로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버버리를 상징하는 트렌치코트에 꽃을 패치워크한 스웨이드 코트는 당장 입고 싶을 만큼 멋스럽고 개성 있는 아이템이니, 올가을 당신의 옷장 속에 아름다운 꽃을 한가득 피워보는 것은 어떨까. 에디터 **권유진**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Living
눈, 코, 입을 즐겁게 하는 커피 머신의 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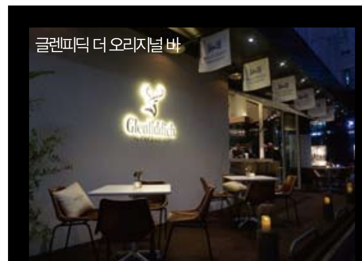
커피 머신의 진화가 계속되고 있다. 빼어난 향과 맛,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편리한 기능, 그리고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공간의 분위기까지 살려주는 커피 머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스마트 디자인'의 흐뭇한 성과물은 집이나 사무실을 카페 부럽지 않은 공간으로 연출하는 데 안성맞춤일 듯하다. 커피는 물론 그린티라테, 홍차라테 등 다양한 캡슐이 강점인 네스카페 돌체구스토는 최근 야심작인 캡슐 커피 머신 '스텔리아(Stelia)'와 좀 더 가볍고 작은 '드롭(Drop)'을 선보였는데, 매끄러운 곡선을 자랑하는 이 신제품들은 맛있는 커피가 크레마 위로 한 방울 떨어지는 순간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는 디자인이 심상치 않다. 실제로 커피 방울을 연상케 하는 이 제품은 손끝 터치만으로 손쉽게 조작 가능하며, 최대 15바의 높은 압력으로 진하고 풍부한 크레마를 즐길 수 있다. 스텔리아는 피아노 블랙, 다크 실버, 글로시 화이트 등 3가지 색상으로 나와 있다. 또 다른 캡슐 커피 브랜드 네스프레소의 '픽시 클립(Pixie Clip)' 역시 디자인부터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커피 머신이다. 인기 모델인 픽시에 간단한 클립 시스템을 적용했는데, 머신 본체의 양옆 클립을 교체하기만 하면 나만의 스타일로 디자인한 커피 머신을 소유할 수 있는 셈이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레몬 네온과 블랙 색상의 앙상블이 상큼하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 드립 커피를 선호하는 이들에게는 영국적인 감성을 담았다는 켄우드의 '케이믹스(kMix)' 라인의 신제품이 반갑게 느껴질 듯하다. 깔끔한 디자인에 강렬하고 아름다운 레드 컬러로 특유의 매력을 뿜어내는 드립 커피 메이커다. 가장 완벽한 커피 추출 온도로 가열해준다는 '써모젠' 가열 시스템으로 보다 깊고 진한 커피 맛을 느끼도록 고안한 이 제품 하나만으로 공간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에디터 **고성연**

포토그래퍼 **박건주**

Beauty
SPECIAL LIP SERVICE

아직도 내게 딱 맞는 립 케어 제품을 찾지 못했다면? 방황하지 말고 이 페이지에 주목할 것. 더욱 풍부해진 성분과 보습력, 예쁜 컬러로 중무장한 립 제품들이 당신의 입술을 책임져줄 테니까.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컬러가 예쁜 것은 물론, 립 케어 성분을 듬뿍 담아 촉촉하게 반짝이는 립 메이크업을 완성해줄 일석이조 아이템을 찾고 있다면 **'디올 어딕트 립스틱'**이 제격. 립스틱 중앙에 위치한 CD 로고 모노그램에 함유된 젤 코트가 이 립스틱의 핵심으로, 3가지 천연 미네랄 오일 성분으로 이루어져 젤 효과의 수분 톱 코트 역할을 한다. 총 35가지의 다양한 컬러로 출시된다(3.5g 4만1천원). **'입생로랑 베르니 아 레브르 플럼프 업'**은 제품명에서도 알 수 있듯 입술을 촉촉하고 볼륨감 있게 가꿔주는 볼류마이저다. 멘솔 추출물이 입술의 곡선을 극대화해 도톰하고 볼륨감 있게 연출하고, 스콸렌 오일과 히알루론산이 입술에 강력한 보습 효과를 선사한다(6ml 4만1천원대). 최초의 립 전용 오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클라란스 인스턴트 라이트 립 컴포트 오일'**은 오일 명가에서 선보이는 제품답게 오일의 풍부한 영양은 그대로 담고, 끈적이지 않는 젤 오일 타입으로 입술에 은은한 반짝임과 플럼핑 효과를 부여한다. 미라벨 자두 오일, 오가닉 호호바 오일을 함유해 다른 립밤에 비해 보습력과 효과의 지속력이 굉장히 뛰어나다(7ml 2만8천원). 립 전용 세럼인 **'프레쉬 슈가 립 세럼 어드밴스드 테라피'**는 입술은 물론 입술 주변 피부까지 케어해주는 전문적인 립 케어 제품이다. 아크멜라꽃 추출물, 키젤리아 아프리카나 열매 추출물, 설탕을 함유해 입술과 입술 주변 피부에 보습과 진정 효과를 제공하고, 탄력을 한층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10ml 5만4천원대). 하이엔드 코즈메틱 브랜드로서의 명성과 제품의 효과를 알린 끌레드뽀 보떼의 립 세럼, **'끌레드뽀 보떼 르 쎄럼 뿌르 레 레브르'**는 바르는 순간 단순히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수분과 영양을 집중 공급해 촉촉하고 통통 튕기듯 탄력 있는 입술로 가꿔준다.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부드러운 입술로 만들어주는 일루미네이팅 콤플렉스와 탄력을 높이는 빵 효모 추출물, 덴차 추출물,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라이스 그레인 오일 성분 등을 함유했다. 특별하게 고안한 메탈 애플리케이터로 마사지하듯 바르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15ml 8만7천원대). 로즈 에센셜 오일을 풍부하게 함유한 틴티드 립밤도 주목할 만하다. **'겔랑 키스키스 로즈립 밤'**은 장밋빛 생기를 머금은 맑은 컬러가 사랑스러운 제품. 로즈 페탈 오일, 호호바 오일, 히알루론산 등을 함유해 보습 · 플럼핑 효과, 예쁜 컬러까지 두루 갖췄다(2.8g 4만5천원). 에디터 **권유진**


글렌피딕 더 오리지널 바

앱솔루트 라운지 서울

Drink
공간형 콘텐츠의 시대, 문화와 미식을 접목한 스피릿(spirits) 라운지들의 잇따른 등장

가을이 깊어지면 증류주를 찾는 애주가들의 행보는 더 부지런해지기 마련이다. 그런 가운데 단독 라운지 바, 아트 전시와 함께하는 공간, 스피릿 & 푸드 페어링으로 유명한 바 등 주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형 콘텐츠가 풍성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블렌디드 위스키 조니워커의 품격을 체험할 수 있는 서울 압구정동의 조니워커 하우스 같은 공간은 위스키 페어링, 프라이빗 위스키 클래스,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내세운 사례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보드카, 데킬라, 럼 등 화이트 스피릿이나 브라운 스피릿의 키 플레이어로 떠오르고 있는 싱글 몰트위스키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기회가 많아졌다. 싱글 몰트위스키 브랜드 글렌피딕은 싱글 몰트라는 카테고리를 탄생시킨 '글렌피딕 더 오리지널'을 얼마 전 한국에 선보였는데, 이 기념비적인 위스키를 유일하게 음미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루이스 클럽(LOUIS CLUB)에 '글렌피딕 더 오리지널 바(Glenfiddich The Original Bar)'를 연 것이다. 오는 12월 12일까지 운영하는 이 몰트 바에서는 글렌피딕 오리지널 바와 어울리는 특별한 페어링 메뉴도 맛볼 수 있다. 15년산을 바탕으로 만든 칵테일, 프렌치 퀴진과 페어링을 시도한 18년산 위스키 등 다양한 메뉴를 접할 수 있다. 또 가로수길에는 보드카업계의 대표 주자 앱솔루트(Absolut)의 단독 라운지 바 '앱솔루트 라운지 서울'도 등장했다. 100% 천연 원료를 블렌딩해 만든 7가지 플레이버 제품을 포함한 총 8종의 앱솔루트 제품은 물론 창의적인 믹솔로지의 미학을 반영한 다양한 칵테일을 경험할 수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브랜드답게 국내외 아티스트의 다채로운 작품 세계를 접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내세웠다. 에디터 **고성연**

RICHARD MILLE

CALIBER RM 07-01

© Didier Gourdon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9, 신라호텔 지하 1층 • 02) 2230 1288

www.richardmille.com

for him Selection

장인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섬세한 장식, 꼼꼼하고 완벽한 마무리, 희귀한 고급 소재까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최상의 럭셔리 아이템. *photographed by* kim do hyun

악어가죽 텍스처의 소가죽 클러치. 27X19cm, 63만원 **알렉산더 왕.**

LV 로고 버클이 눈에 띄는 악어가죽 벨트 4백70만원 **루이 비통.**

가죽 디테일이 포인트인 보잉 선글라스 1백20만원 **까르띠에.**

디자인이 심플한 악어가죽 브레이슬릿 58만원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매끄러운 남성적인 라인이 돋보이는 스트랑 라인 R 만년필 1백25만원 **S.T. 듀퐁.**

스포티하면서 세련된 감성의 스웨이드 재킷 3백46만원 **랄프 로렌 퍼플 라벨.**

메탈 느낌의 플라즈마 하이테크 세라믹 케이스와 독특한 디자인의 다이얼, 레더 스트랩의 조화가 클래식한 다이아마스터 워치 3백45만원 **라도.**

럭셔리한 라임나무 케이스의 도미노 게임 키트 6백36만원 **로로피아나.**

상징적인 더블 C 로고의 다이아몬드 커프스 링크 1천1백만원대 **까르띠에.**

가칠고 자유로운 로큰롤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센슈얼한 우디 가죽 향의 다크 라벨 오 드 투왈렛 75ml 8만2천원 **존 바바토스.**

화려한 금색 자수 장식의 드레스 슈즈 가격 미정 **크리스찬 루부탱.**

스터드 장식을 더한 레이스업 슈즈 1백15만원 **알렉산더 맥퀸 by 분더샵.**

18K 골드로 만든 말발굽 모티브의 머니 클립 3백90만원 **톰 포드.**

버터플라이 프린트의 실크 타이 27만원 **발렌티노 by 무이.**

간결한 디자인, 매끄러운 소재, 완벽한 마감 디테일에서 풍격이 느껴지는 브리프케이스. 38X30cm, 1천만원대 **에르메스.**

부드럽고 따뜻한 위즐 털로 만든 안감이 럭셔리한 미디엄 기장의 재킷 1천9백만원대 **키톤.**

무이 02-3446-8074
분더샵 02-3444-3300
에르메스 02-544-7722
라도 031-5170-3104
톰 포드 02-6905-3534
키톤 02-6905-3787
알렉산더 왕 02-3446-7729
까르띠에 02-3446-7116
루이 비통 02-3432-1854
랄프 로렌 퍼플 라벨 02-545-8200
S.T. 듀퐁 02-2106-3577
존 바바토스 02-3443-5050
로로피아나 02-546-0615
크리스찬 루부탱 02-6905-3795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070-7130-9200

Brioni

TOBIAS MADISON

for her
Selection

화려할수록 존재감이 드러나는 법. 더불어 품위와 우아함까지 갖췄다면 더할 나위 없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밑단의 풍성한 퍼 트리밍 디테일이 돋보이는 그레이 코트 가격 미정 **필립 플레인.**

관능적인 플로럴 향을 담은 드라이 오일 텍스처의 신개념 향수, 쟈도르 터치 드 퍼퓸. 20ml 14만5천원 **디올.**

화려한 프린트의 실크 스카프 50만원대 **에르메스.**

레드 퍼 장식의 미니 보이 샤넬 백. 20X12cm, 4백만원대 **샤넬.**

구조적인 디자인의 선글라스 73만원 **디올 by 사필로.**

뱀부 태슬 장식을 더한 파이톤 장지갑 1백47만원 **구찌.**

볼드한 디자인의 블루 에나멜 뱅글 1백만원대 **에르메스.**

멀티컬러 주얼이 포인트인 샌들 가격 미정 **펜디.**

신비로운 달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문페이즈 기능의 보헴 문가든 컬렉션 다이아몬드 워치 1천4백90만원 **몽블랑.**

크리스털 버클 장식의 파스텔 블루 소가죽 벨트 1백18만원 **블루마린.**

V 시그니처 귀고리 60만원대 **루이 비통.**

꽃잎을 형상화한 마키즈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함을 극대화한 빅토리아 키 펜던트 1천7백만원대 **티파니.**

럭셔리한 친칠라 퍼 트리밍을 더한 캐시미어 숄 1천8백만원대 **로로피아나.**

로맨틱한 라벤더 컬러의 악어가죽 토트백. 32X23cm, 2천5백만원대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부드러운 퍼를 매치한 미디 힐 2백19만원 **발렌시아가 by 분더샵.**

구찌 1577-1921
샤넬 02-543-8700
디올 02-3438-9631
펜디 02-2056-9022
필립 플레인 02-546-9132
에르메스 02-544-7722
사필로 02-514-9006
몽블랑 02-2118-6053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070-7130-9200
블루마린 02-6905-3447
루이 비통 02-3432-1854
분더샵 02-2056-1232
로로피아나 02-546-0615
티파니 02-547-9488

2015 Watches & Wonders

세계적인 시계 박람회인 SIHH(Salon de International Haute Horlogerie)의 아시아 버전인 워치스 앤 원더스(Watches & Wonders)가 올해 3회를 맞았다. 지난 9월 30일부터 4일간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오직 초대받은 사람만이 참석해 하이엔드 워치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독보적인 시계 행사다. 까르띠에, 몽블랑 등 리치몬드 그룹의 브랜드부터 리차드 밀 같은 독보적인 워치 브랜드까지, 12개 브랜드의 매력을 〈스타일 조선일보〉가 직접 확인했다.

예거 르쿨트르

Jaeger-LeCoultre
예거 르쿨트르 지오피직 트루 세컨드

기계식 시계 최고의 가치인 정확도에 방점을 찍는 모델로, 정확한 시간 측정을 위해 인덱스 위에서 움직이는 바늘이 1초 간격으로 점프하며 움직이는 트루 세컨드 시스템을 구현한 새로운 컬렉션 지오피직. 클린 컷이라 불리는 우아하고 균형미 넘치는 39.6mm 사이즈의 케이스는 과감한 각도의 러그, 매끈한 사이드 라인, 1958년 모델과 같은 스크루 고정 방식의 케이스 백은 클래식 워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지이로 랜이라 불리는 비원형 배치의 이상적인 밸런스 휠을 개발하기 위해 최고의 워치메이커들이 도전했고, 예거 르쿨트르의 오토매틱 칼리버 770을 통해 놀라운 정확성을 손목 위에 구현했다.

몽블랑

Montblanc
몽블랑 빌르레 컬렉션 투르비옹 실린더릭 지오스피어 바스코 다 가마 나이트 스카이

이미 다이얼 디자인으로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모델. 단 18개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이는 모델로, 원통형 투르비옹과 밤하늘을 고스란히 담은 창이 특징이다. 전설적인 탐험가 바스코 다 가마의 항해에서 영감을 받아 유래한 탐험가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북반구와 남반구의 경관을 표현했다. 2개의 구체는 인그레이빙과 미니어처 페인팅으로 각 대륙 간의 경계선, 양각으로 표현한 대양까지 섬세하게 완성했다. 47mm에 달하는 볼륨감 넘치는 케이스에 핸드 와인딩 칼리버 MB M68.40가 월드 타임 디스플레이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물론 3개의 타임 존을 표시한다. 12시 방향의 투르비옹은 2개의 반구와 어우러져 더욱 드라마틱한 움직임을 완성한다.

피아제

Piaget
피아제 라임라이트 스텔라 워치

서정성을 고스란히 담은 매력적인 피아제의 새로운 라임라이트 컬렉션 스텔라 워치. 최근 가장 각광받는 고전적인 기계식 시계의 기능인 문페이즈를 시계 중심부에 데커레이션해 풍부한 감성과 브랜드 고유의 완성도를 모두 담았다. 실용적인 36mm 사이즈의 케이스에 핑크 골드 시침, 14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문페이즈, 1백26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하이 주얼리를 함께 선보이는 브랜드인 만큼 다이얼의 구성과 디자인이 뛰어나다. 그뿐 아니라 피아제의 자체 제작 584P 셀프 와인딩 기계식 리자문 페이스 인디케이터 무브먼트의 정확성으로 기계식 시계의 매력까지 함께 만끽할 수 있다.

Roger Dubuis
로저 드뷔 엑스칼리버 스파이더 포켓 타임 인스트루먼트

비교적 최근인 1995년 첫발을 내딛은 로저 드뷔는 차별한 기계식 시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스켈레톤 디자인과 모험 정신을 가득 담은 드라마틱한 제품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했다. 올해 최초로 공개한 새로운 엑스칼리버 포켓 워치는 기존의 클래식한 포켓 워치에 대한 도전이자 새로운 제안이다. 4개의 밸런스 휠이 쉼 없이 운동하는 쿼투오르(Quatuor) 테크놀로지의 대명사 칼리버 RD101의 움직임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 대범한 디자인이 눈을 사로잡는다. 다양하게 해석한 원형 모티브 사이로 마치 시계가 살아 있는 듯 강렬한 존재감을 선사한다. 모든 제품에 제네바 실(Geneva Seal)을 새겨 넣은 유일한 브랜드이기에 전위적인 디자인까지도 품격으로 느껴진다.

로저 드뷔

Van Cleef & Arpels
반클리프 아펠 까데나 세르티 브레이슬릿 워치

옐로 골드와 다이아몬드, 머더오브펄이 어우러진 완전히 새로운 시계, 바로 반클리프 아펠의 오랜 유산을 재해석한 까데나 컬렉션이다. 유명한 알함브라 모티브와 지퍼 모티브의 네크리스, 발물림이 보이지 않는 미스터리 세팅 등 아름다운 아이콘을 선보인 반클리프 아펠에서 아심차게 내놓은 새로운 시계로, 클래식함과 대범함을 모두 지녔다. 다이얼이 작아 브레이슬릿에 감추어진 시크릿 워치의 느낌을 풍기는데, '까데나(Cadenas)'는 프랑스어로 자물쇠를 의미한다. 주얼리의 기차와 고전미를 완성도 있게 담을 수 있는 브랜드만이 선보일 수 있는 독보적인 디자인으로 많은 여성들의 주목을 받았다. 총 이홉 가지 디자인으로 선보인다.

반클리프 아펠

랑에 운트 죄네

A. Lange & Söhne
랑에 운트 죄네 랑에 1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위스 메이드가 아닌 독일 파인 워치메이킹의 자부심, 랑에 운트 죄네의 아이코닉 모델 '랑에 1'의 새로운 버전. 브랜드 매뉴팩처에서 50번째로 자체 개발한 수동 와인딩 칼리버 L121.1을 장착해 완성도를 높였다. 매력적인 동심원의 미묘함에 랑에 운트 죄네 특유의 대형 날짜 창을 더해 디자인 밸런스가 뛰어나다. 3시 방향에 시적으로 흐르는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는 랑에 1의 독보적인 매력을 배가하는 포인트다. 다이얼 사이즈는 38.5mm로 기존 모델과 동일하지만 베젤 폭을 줄여 다이얼이 조금 더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다. 최근 매뉴팩처를 새롭게 마련하며 큰 도약을 알렸기에 앞으로 브랜드의 정신을 더욱 공고히 할 제품이 기다려진다.

까르띠에

Cartier
까르띠에 끌레 드 까르띠에 미스터리 아워 워치

시계 예술의 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새로운 메커니즘의 워치. 까르띠에의 새로운 아이콘이 된 끌레 컬렉션의 아름다운 유선형 케이스를 더욱 부각하는 디자인이다. 투명한 다이얼 중심에 위치한 2개의 핸즈가 공중에 붕 떠 있는 듯 보이는데, 로마자 사이로 보이는 스켈레톤 처리한 무브먼트의 복잡성과 대비되어 더욱 드라마틱하다. 브랜드 고유의 블루 컬러 로마자를 그래픽적으로 처리했고, 커다란 괘종시계의 태엽 형태를 연상케 하는 크라운이 고전미와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동시에 표현한다. 까르띠에 매뉴팩처의 매뉴얼 와인딩 메캐니컬 무브먼트인 9981 MC 칼리버를 장착해 까르띠에라는 브랜드가 시계 비즈니스에서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델이다.

IW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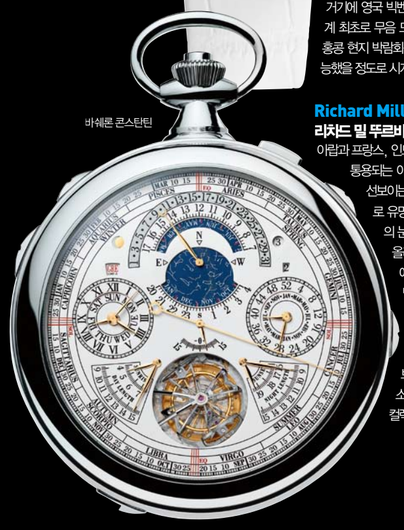
IWC
IWC 포르토피노 핸드 와인드 모노푸셔

기계식 시계의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정교한 매력을 담고 있는 크로노그래프 워치를 하나의 크라운으로 조작할 수 있는 IWC 최초의 모노푸셔 워치. 크로노그래프의 스타트와 스톱, 리셋 기능을 하나의 멀티 기능 푸셔로 조작할 수 있는 자체 제작 무브먼트 칼리버 59630을 탑재해 완성도를 높였다. 크로노그래프, 파워 리저브 창, 시간과 분을 표시하고 날짜 창까지 담았지만 간결하고 클래식하게 레이아웃한 다이얼 디자인은 브랜드 고유의 매력을 잘 담고 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구두 매뉴팩처인 산토니와 협업해 선보이는 레더 스트랩도 품격을 더한다. 화이트 골드와 레드 골드 버전 두 가지로 출시되었다.

보메 메르시에

Baume & Mercier
보메 메르시에 클래시마 오토매틱 투톤

매력적인 가격에 품질 좋은 시계를 선보이는 보메 메르시에의 '클래시마 오토매틱 투톤'. 아시안들이 가장 선호하는 골드와 실버의 콤비 워치에 골드 로마숫자와 인덱스, 스위스 오토매틱 무브먼트까지 더해 대중적이면서도 클래식한 시계를 완성했다. 기요셰 데코 실버 다이얼에 골드 핸즈는 오래도록 착용할 수 있는 워치 디자인의 고전이라 할 수 있다. 뒷판에 보메 메르시에의 로고이자 균형미의 상징인 그리스 문자 '파이(phi)'가 각인되어 있다. 사회 초년생과 워킹 커플 워치에 집중하는 보메 메르시에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워치 컬렉션이다.


바쉐론 콘스탄틴

Vacheron Constantin
바쉐론 콘스탄틴 레퍼런스 57260

올해 워치스 앤 원더스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대형 회중시계 모델. 기계식 시계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복잡한 컴플리케이션과 혁신적인 테크닉을 더블 다이얼에 담은 예술적인 워치다. 실제 제품 이름은 이 시계를 주문한 소유주와 소수의 브랜드 관계자만이 알고 있기에 편의상 레퍼런스 넘버인 57260로 부른다. 하브리 캘린더를 포함한 멀티플 캘린더와 최초로 더블 레트로그레이드와 결합한 라트라팡테(스플릿 세컨즈) 크로노그래프 등을 포함한, 기존에 찾아보기 어려운 총 57개의 컴플리케이션을 탑재했기에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거기에 영국 박벤의 웨스트민스터 차임과 똑같은 기능을 더해 세계 최초로 무음 모드까지 기계적으로 구현했다. 소유주의 배려로 홍콩 현지 박람회장에서 실물을 볼 수 있었으나 사진 촬영은 불가능했을 정도로 시계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전설적인 제품이다.

파네라이

Officine Panerai
파네라이 라디오미르 1940 10데이즈 GMT 오토매틱 오로 로소

이탈리아 워치라는 독특한 포지션으로 시계 시장에 새로운 비전을 펼치고 있는 파네라이의 대표 제품인 라디오미르 1940 디자인에 GMT 기능과 10일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춘 오토매틱 칼리버 P.2003/10 매뉴팩처 무브먼트를 결합한 스페셜 에디션. 파네라이 최초의 스켈레톤 오토매틱 무브먼트는 고유의 심플한 케이스 디자인과 어우러져 마니아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간다. 와인딩 크라운을 당겨 빼는 즉시 밸런스가 멈추며 초침이 영점이 되는 세컨드 리셋 장치와 기존 시계의 작동은 그대로 두고 현지 시간에 따라 바늘을 한 번에 1시간씩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

www.watchesandwonders.com

에디터 **배미진** 홍콩 현지 취재

리차드 밀

Richard Mille
리차드 밀 뚜르비용 RM 26-02 아블 아이

아랍과 프랑스, 인도 등 다양한 문화권에서 고통과 불행의 상징으로 통용되는 이블 아이(evil eye)를 모티브로 하이엔드 워치를 선보이는 리차드 밀. 유난 독특하고 새로운 개념의 워치로 유명한 브랜드이기에 소재 선택부터 남다르다. 악마의 눈을 표현한 이 워치는 제네바의 유명한 시계 장인 올리비에 보세가 그랑 푀 에나멜 기법으로 완성한 예술품으로, 불길한 기운을 더 강렬한 부적으로 막아내고자 의미를 지녔다. 고온에서 여러 번 구워내기를 반복하는 클래식한 그랑 푀 기법을 현대적인 디자인에 도입했다. 이에 더해 50시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춘 매뉴얼 와인딩 무브먼트 뚜르비용 TM26-02와 블랙 TZP 세라믹 소재 케이스를 더해 오직 리차드 밀만의 독보적인 컬렉션으로 완성했다.

brilliant Charisma

어둠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드라마틱한 얼굴로 매혹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하이 주얼리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아래부터 순서대로) **부쉐론 쌔랭 보헴 화이트 골드 롱 네크리스** 이집트 유물 같은, 다이아몬드를 빽곡히 세팅한 뱀 머리 형상의 로망을 모앙 펜던트는 경건한 느낌까지 풍긴다. 빗줄처럼 꼬인 네크리스 체인을 더해 존재감을 극대화했다. **까르띠에 파리 누벨바그 컬렉션 네크리스** 파리의 창조적인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담은 네크리스. 형형색색의 캔디와 파리의 일상을 경쾌하게 담았다. 시럽을 뿌린 듯 매끈한 셔벗 모앙의 펜던트가 참돋보인다. **불가리 세르펜티 투보가스** 골드 메시 링크 기법을 활용해 뛰어난 유연성을 선보이는 네크리스. 풍요와 지혜, 불멸을 상징하는 뱀에게서 영감을 받은 컬렉션으로, 뱀의 머리와 꼬리를 다이아몬드로 장식했다. **반클리프 아펠 서프 블랑 컬렉션** 신들바람을 따라 펼쳐지는 연인 부드러운 움직임을 표현한 링. 화이트와 그레이 컬러 머더오브펄, 다양한 핑크와 퍼플 사피어 세팅이 이색적인 매력을 자아낸다. 독보적인 스타일의 하이 주얼리를 원하는 여성에게 추천한다. **샤넬 화인 주얼리 누엣 드 디아망 링** 라운드 블랙 비즈, 다양하게 커팅한 다이아몬드로 방하늘의 환상적인 매력을 담았다. **타사키 스네이킹 바인 네크리스** 골드 체인으로 진주를 엮어 가시 덩굴 속 처럼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롱 네크리스. **샤넬 화인 주얼리 누엣 드 디아망 네크리스** 마드무아젤 샤넬의 모티브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별, 고메뜨 모티브의 네크리스. 1백73.99캐럿의 블랙 패싯 비즈 다이아몬드로 네크리스를 완성해 강렬하다. 에디터 **베미진**

부쉐론 02-3213-2246 **타사키** 02-3461-5558 **불가리** 02-2056-0172 **샤넬 화인 주얼리** 02-3442-0962
반클리프 아펠 02-3440-5660 **까르띠에** 1566-7277

GALLERIA WEST
GALLERIA TIMEWORLD
SHINSEGAE GANGNAM
SHINSEGAE MAIN
SHINSEGAE CENTUM

DVF
DIANE von FURSTENBERG

DVF SECRET AGENT
A FILM BY PETER LINDBERGH STARRING KARLIE KLOSS
DVF.COM #DVFSECRETAGENT

A Gentle Touch

(왼쪽부터) 부드러운 버건디 컬러의 소가죽 소재로, 탈착할 수 있는 스트랩이 있어 실용적인 토트백, 35X42cm, 1백13만2천원 **랄프 로렌 블랙 라벨.** 베지터블 가죽과 따뜻한 느낌의 트위드를 매치한 트위드 밸팅 브리프케이스, 42X31cm, 75만원 **하트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푸마토 회화 기법에서 영감을 받은 자연스러운 음영 컬러가 특징인 스푸마토 도큐먼트 케이스, 36X30cm, 2백만원대 **몽블랑.** 스크래치에 강하면서 터치감이 부드러운 엠보를 적용한 가죽 소재가 눈에 띄는 포켓 장식의 브리프케이스, 40X32cm, 55만원 **일모.**

a few good Bags

갖고 싶다. 남자의 손에, 어깨에 무심하게 자리한 신상 백에 눈길이 머무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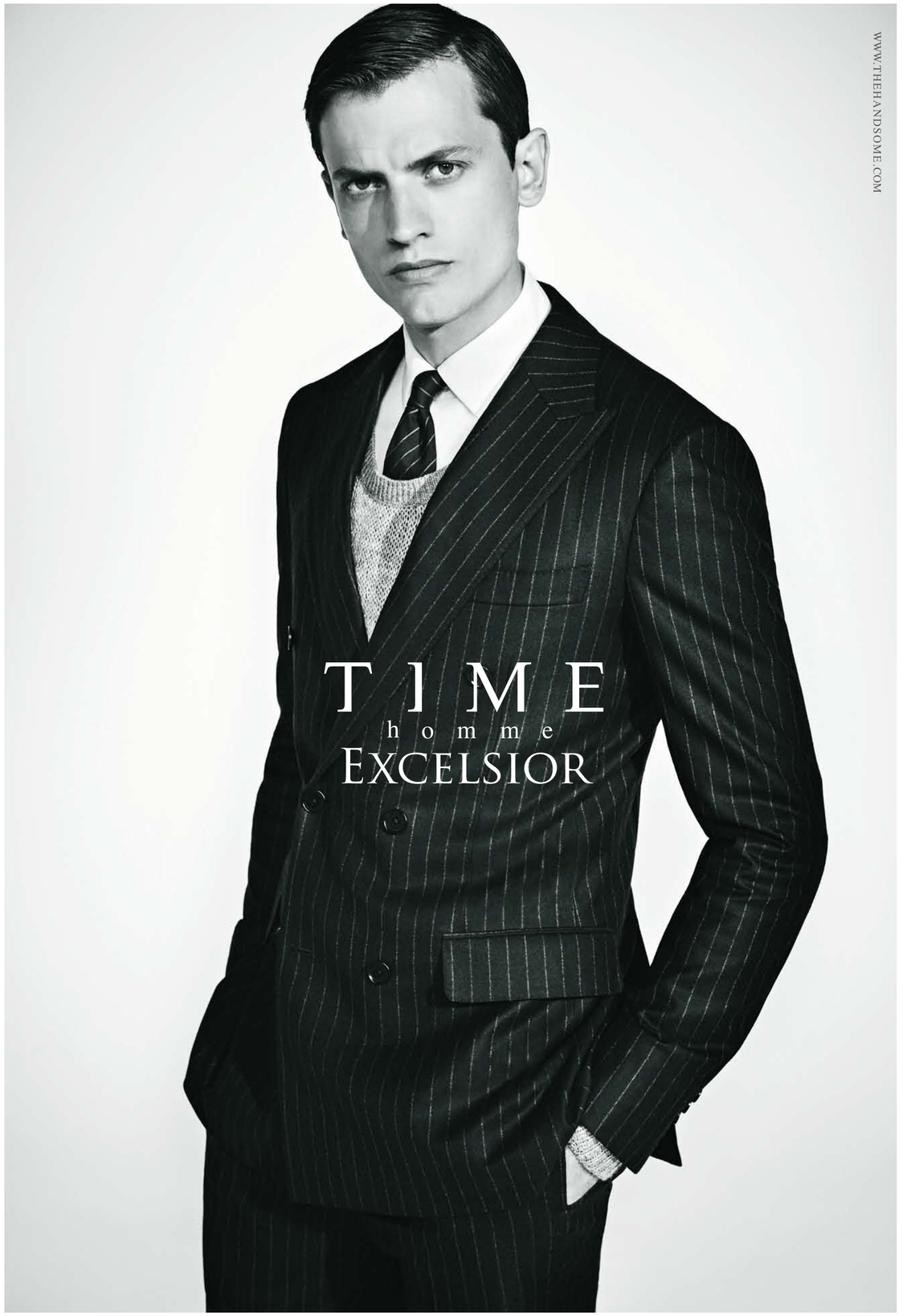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Urban Chic

(왼쪽부터) 아규작인 깃털 패턴의 송아지가죽 클러치, 26.5X36cm, 1백만원대 **페라가모.** 광택이 도는 나일론 소재에 체크 패턴의 사피아노 가죽을 댓댄 클러치형 브리프케이스, 37X27cm, 1백50만원대 **프라다.** 버킷 백 실루엣이 유니크한 빅 사이즈 백, 46X55cm, 1천만원대 **에르메스.** 빗줄 모티브 패턴과 상징적인 다이에 패턴이 만나 감각적인 디자인을 완성한 크리스토퍼 PM 백팩, 32X46cm, 4백20만원대 **루이 비통.** 한쪽 어깨에 툭 걸쳤을 때 더욱 멋스러운 부드러운 세이프의 양가죽 백팩, 53X34cm, 3백20만원 **로에베 by 분더삽.** 에디터 **권유진**

스타일리스트 **유원정** 어시스턴트 **이세정**

랄프 로렌 블랙 라벨 02-545-8200 **몽블랑** 02-2118-6053 **일모** 1599-0007 **페라가모** 02-2140-9666 **프라다** 02-3218-5331 **에르메스** 02-544-7722 **루이 비통** 02-3432-1854 **분더삽** 02-3444-3300 **하트만** 02-3448-5914



HYUNDAI DEPARTMENT STORE

APGUJEONG MAIN 02-518-9728 TRADE CENTER 02-3453-7208 MOKDONG 02-2163-1995 PANGYO 031-5170-1652

LOTTE DEPARTMENT STORE

MAIN 02-772-3535 JAMSIL 02-2143-7632 BUSAN 051-803-2777

SHINSEGAE DEPARTMENT STORE

GWANGJU 062-360-1548

Go *sports*

요트, 레이싱, 다이빙까지. 정밀한 계측이 필요한 스포츠의 멋진 파트너가
되어줄 기계식 워치. 완성도 높은 무브먼트를 장착한 시계의 매력을
익스트림하게 느낄 수 있는 스포츠 워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오메가 플로프로프 1200M 심해 탐험 중 다이버가 겪는 극한의 압력을 견디낼 수 있도록 제작한 씨마스터 컬렉션 중 가장 높은 압력인 1,200m 방수 기능을 갖춘 모델. 55X48mm 케이스에 압력에 강한 스크루-인 크라운과 자동 헬륨 가스 배출 밸브, 베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푸셔를 탑재했다. 1천만원대. 문의 02-3449-5917

블랑팡 엠-에블루션 스플릿 세컨즈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 이빙기르드하고 다이내믹한 모델. 자동차 레이싱에 필요한 스플릿 세컨드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갖춘 워치로, 40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한 칼리버 69F9를 장착했다. 스포티한 스트랩 디자인과 강렬한 레드 컬러 매치가 인상적이다. 6천4백만원대. 문의 02-2118-6474

파르미지아니 펄싱 005 이탈리아 럭셔리 요트 제조 브랜드 펄싱(Pershing)과 파르미지아니의 컬래버레이션 제품. 200m 방수 기능을 갖췄고 러버 소재 크로노그래프 푸시 버튼, 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베젤까지, 스포츠 워치에 필수적인 요소를 모두 탑재했다. 2천5백만원대. 문의 02-310-1737

오데마 피게 로열 오크 오프쇼어 크로노그래프 럭셔리 스포츠 워치의 정을 연 오데마 피게의 상징적인 컬렉션. 묵직한 팔각형 베젤의 옥타곤 케이스는 8개의 스크루로 고정해 충격에 강하다. 푸시 버튼과 크라운은 러버와 스크래치에 강한 블랙 세라믹으로 완성했다. 스포츠 워치의 고전미라 할 만하다. 3천5백만원대. 문의 02-3449-5917

파네라이 루미노르 섭마제블 1950 3데이즈 오토매틱 티타니오 시계 마니아들이 열망하는 독보적인 방수 기능을 구현하는 크라운 가드, 러버 브리지를 장착한 파네라이 루미노르 컬렉션. 크라운 디자인만으로도 이미 박력이 넘친다. 300m 방수, 다이빙 시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1천만원대. 문의 02-3449-5922

태그호이어 모나코 크로노그래프 1969년 탄생한 세계 최초의 사각형 방수 시계인 모나코 컬렉션. 전설적인 배우이자 태그호이어 홍보대사 스티브 매퀸이 영화 〈르망〉에서 착용한 이후 지금까지 브랜드의 명성을 고스란히 이어가고 있다. 강렬한 블루 다이얼과 정확한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매력적이다. 6백만원대. 문의 02-776-9018

불가리 디아고노 스쿠바 1994년 첫선을 보인 컬렉션으로, 간결한 디자인에 300m 방수 기능한 빈전의 매력을 담은 컬렉션이다. 다이빙과 잠수 횟수 측정이 가능하고 스크루 룩 크라운 디테일로 완성도를 높였다. 시계바늘과 인덱스는 슈퍼루미노바 소재로 처리했음에도 골드 소재 덕분에 클래식하다. 1천만원대. 문의 02-2056-0172

위블로 빅뱅 페라리 그레이 세라믹 올해 페라리와 파트너십을 맺어 새롭게 선보이는 컬래버레이션 워치인 빅뱅 페라리 그레이 세라믹. 페라리 그룹에서 영감을 받은 블랙 메시 스타일 다이얼이 가장 큰 변화다. 백 케이스를 통해 페라리의 상징인 5스포크 휠 디자인 로터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 3천5백만원대. 문의 02-2118-6208

까르띠에 칼리브 드 까르띠에 다이버 카본 워치 300m 방수 기능, 슈퍼루미노바 인덱스, 러버 스트랩, 부식과 충격에 강한 카본 소재를 더한, 꼭 필요한 기능만 모은 다이버 워치. 올해 새롭게 선보인 제품으로 두께가 11mm에 불과해 착용감이 뛰어나고 까르띠에 자체 제작 무브먼트를 탑재해 매력적이다. 1천9백만원대. 문의 1566-7277 에디터 **배미진**

the CASHMERE

CHEONGDAM AVENUE / HYUNDAI APGUJEONG MAIN / HYUNDAI TRADE CENTER / HYUNDAI PANGYO
GALLERIA LUXURY HALL WEST / GALLERIA CENTER CITY / SHINSEGAE MAIN / SHINSEGAE GANGNAM / SHINSEGAE CENTUM CITY
WWW.THEHANDSOME.COM

perfect Cushion

선크림을 바를 필요도 없을뿐더러 가볍게 도장을 찍듯 톡톡 두드려주기만 하면 완벽한 피부로 연출해주니 가히 여자를 위한 최고의 발명품이 아닐 수 없다. 여성들이 바라는 베이스 메이크업의 모든 것을 담은 쿠션 파운데이션의 열풍이 아직 유효한 이유.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아이오페 에어쿠션 XP 매트 피니쉬** 쿠션 파운데이션의 원조인 아이오페 에어쿠션의 최신 버전. 피부 속은 촉촉하고 겉은 보송하게 연출하는 제품으로, 오후만 되면 번들거리는 피부에 5겹발라도 밀리지 않는다. 수분 충전제라 불리는 히알루론산을 함유해 시간이 지나도 피부가 땅기지 않는다. 30g 4만원대. 문의 080-023-5454

설화수 퍼펙팅 쿠션 브라이트닝 윤조에센스와 자여진에센스 등에 적용한 한방 원료를 그대로 담은 설화수의 쿠션 파운데이션. 이 제품 역시 〈동의보감〉에서 안티한 진귀한 성분인 목련 추출물과 진주모 콤플렉스를 함유하고 있다. 바르는 즉시 피부톤을 화사하게 밝혀주며, 쿠션 파운데이션은 건조할 거라는 예상을 뒤엎고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매력적이다. 15gX2 6만5천원대. 문의 080-023-5454

오휘 파우더리 메탈 쿠션 빠르고 간편하게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는 쿠션 파운데이션의 최대 장점에 하루 종일 실크처럼 부드러운 피부를 유지해주는 롱래스팅 효과까지 갖췄다. 특히 획기적인 메탈 플레이트가 시선을 사로잡으며, 외부 공기로부터 파운데이션을 보호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단연 눈에 띈다. 15gX2 5만원. 문의 080-727-5252

아모레퍼시픽 안티에이징 CC쿠션 SPF 25/PA++ 아모레퍼시픽의 베스트셀러인 트리트먼트 컬러 쿠션의 업그레이드 버전. 기존 제품의 장점인 촉촉한 텍스처는 그대로 유지하고, 항산화 효과가 있는 녹차 성분으로 안티에이징 기능을 더했다. 거기에 커버력을 높여 잡티와 주름으로 고민하는 여성들이 자연스러우면서 화사한 피부를 더욱 쉽게 연출할 수 있도록 했다. 15gX2 8만7천원대. 문의 080-020-5757

빌리프 모이스춰 밤 쿠션 수분 폭탄 크림으로 잘 알려진 빌리프의 쿠션 파운데이션. 촘촘한 마이크로 폼 쿠션을 적용해 자연스럽고 꼼꼼하게 커버할 수 있다. 특히 피부에 완벽하게 밀착되도록 도와주는 쫀쫀한 퍼프가 인상적이다. 함성 방부제와 합성 유기 색소를 배제해 피부가 예민한 여성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15gX2 3만4천원. 문의 080-023-7007

헤라 미르코 & 디에고 콜라보 UV 미스트 쿠션 울트라 모이스처 가볍게 빌리면서 커버력까지 뛰어나 한번 써본 이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는 쿠션 파운데이션. 특히 이 제품은 지난해 헤라와 컬래버레이션한 디자이너 듀오 미르코 & 디에고와 다시 만나 새로운 옷을 입었다. 홀리데이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한 제품답게 화려하고 감각적인 일러스트로 수정 화장을 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 15gX2 4만8천원. 문의 080-023-5454 에디터 **김지혜**

Sulwhasoo

雪花秀

Sulwhasoo

CAPSULIZED GINSENG FORTIFYING SERUM

자여진에센스

주름줄기에 맞서는 강력한 힘이
깊어지는 주름을 탄력으로 차올리다

설화수 자여진에센스

피부 탄성이 무너지면 잔주름이 깊고 넓게 뻗어 나가는 주름줄기 현상이 시작됩니다
깊어지는 주름줄기를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설화수 자여진에센스. 인삼 성분을 캡슐화한 진세니스피어™가
피부 본연의 탄성을 강화시켜 힘있게 차오르는 매끄럽고 탄력 있는 피부로 가꿔줍니다
더욱 강력해진 안티에이징 효과로, 주름을 이기는 피부의 힘을 경험하세요

• 유명백화점이나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 www.sulwhasoo.com • https://www.facebook.com/sulwhasoo.kr • 고객상담실 :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

editor's Pick

쇼핑 욕구가 샘솟는 새로운 시즌이다.
그만큼 눈길을 사로잡는 신제품도 가득하다.
〈스타일 조선일보〉 기자들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이달의 뷰티 신상 리스트.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바이레도 로즈 오브 노 맨즈 랜드** 국경 없는 의사회를 후원하기 위해 만든 의미 있는 향수로,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중 무인 지대에 핀 아름다운 장미로 불리며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한 간호사들의 헌신에 대한 찬사를 담았다. 핑크 페퍼, 로즈 앱솔루트, 화이트 앰버 등이 어우러져 성숙한 장미 향을 느낄 수 있다. 100ml 29만원. 문의 02-6979-0503 *_by 에디터 권유진*

프레쉬 슈가 틀립 사인 립 트리트먼트 기존 슈가 립 트리트먼트 컬렉션의 굉팬으로서, 이 컬러감 예쁜 립 트리트먼트는 출시되자마자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바로 구입했다. 촉촉한 보습력, 자연스러운 생기를 더하는 핑크빛 틀립 컬러, 반짝이면서도 끈적이지 않는 포뮬러가 단연 돋보인다. 슈가 라인 마니아에게 적극 추천한다. 6ml 2만8천원대. 문의 080-822-9500 *_by 에디터 권유진*

디올 디오리쿼 스테이트 오브 골드 일루미네이팅 프레스드 파우더 세계적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피터 필립스가 디올에 합류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크리스마스 컬렉션. 미세하고 부드러우며 반짝이는 입자를 담은 기품 있고 우아한 핑크빛 파우더로, 얼굴과 쇄골 라인에 사용하면 매력적이다. 6g 10만6천원대. 문의 02-3438-9529 *_by 에디터 배미진*

조르지오 아르마니 크레마 네라 아쿠아판젤레리아 워터 에센스 중 수분감이 단연 독보적인 제품. 단 한 번만 발라도 피부 안쪽까지 촉촉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히알루론산을 함유해 수분 유지력까지 높으니 건조함으로 고민하는 여성에게 효과적이다. 150ml 17만원. 문의 080-022-3332 *_by 에디터 배미진*

아벤느 젠틀 클렌징 무스 폼 유럽 1위 더마 케어 브랜드라는 이름답게 가격 대비 품질력이 뛰어난 제품. 평소 사용하기 편리한 무스 타입 클렌저를 선호하는 편이라 더욱 만족스러웠다. 두피 라인의 유분을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일 정도로 뛰어난 세정력을 갖췄다. 150ml 2만4천원. 문의 1899-4802 *_by 에디터 배미진*

설화수 맨 본윤크림 남자도 가꿔야 하는 시대다. 설화수 맨에서 선보이는 이 크림은 인삼씨 오일 성분을 함유해 피부 노화를 완화하고 피부를 촉촉하게 가꿔주는 고보습 안티에이징 제품이다. 영양감 넘치는 풍부한 질감으로, 어떠한 보습제를 발라도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피부가 푸석푸석한 남성이 사용하면 최상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것. 40ml 9만원대. 문의 080-023-5454 *_by 에디터 권유진*

입생로랑 르 맹 투쉬 에끌라 꽁성트레 도르 로즈 촉촉한 피부도 단숨에 생기 넘치는 피부로 탈바꿈시키는 장미빛 멀티 베이스.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전에 베이스로 사용하거나 파운데이션과 믹스해 사용하면 혈색이 감도는 생기 있는 피부를 연출할 수 있다. 각도에 따라 은은하게 빛나는 부담스럽지 않은 미세한 시머링 펄을 함유해 알맹 부터가 흐르는 고급스러운 피부가 완성된다. 30ml 6만9천원대. 문의 080-347-0089 *_by 에디터 권유진*

샤넬 루쥬 느와르 압솔류망 4구 섀도 신느 파티큘리르 샤넬의 퀼팅 패턴을 정교하게 새긴 홀리데이 아이섀도 팔레트는 화장대에 고이 모셔놓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패키지와 컬러를 자랑하는 위시 리스트 1순위 아이템이다. 펄감이 은은한 핑크, 브라운, 버건디, 옐로 골드 등 네 가지 컬러로 올 연말 매혹적인 파티 메이크업을 완성해볼 것. 4g 8만1천원. 문의 080-332-2700 *_by 에디터 권유진*

클라란스 하이드라퀀치 에멀젼 SPF 15 데일리 로션으로 사용하기 좋은 산뜻한 제품.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추었지만 자극이 적어 수시로 발라도 부담 없다. 피부가 건조할 때마다 덧발라도 좋을 만큼 가벼운 제형이라 매력적이다. 125ml 5만7천원. 문의 080-542-9052 *_by 에디터 배미진*

겔랑 오키드 임페리얼 넥 앤 데콜테 하이엔드 크림 중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오키드 크림의 목 전용 크림. 얼굴에 바르는 오키드 크림보다 텍스처가 쫀쫀한데도 산뜻해 전체적으로 조여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목뒤부터 앞쪽으로, 목 앞에서 새끌 방향으로 쓸어내리며 바르면 더 효과적이다. 75ml 47만8천원. 문의 080-343-9500 *_by 에디터 배미진*

랑팔라루르 바이오 시봉 오발 사과 하나를 먹어도 유기농 마크를 확인하는 요즘, 피부를 위해 선택한 제품은 바로 이 유기농 비누다. 1백86년의 역사를 자닌 천연 수제 비누로, 6대째 장인이 직접 하나하나 만드는 것이 특징. 100% 유기농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고, 유해 성분은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얼굴, 두피, 보디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150g 1만4천원. 문의 02-3443-1805 *_by 에디터 권유진*

베네피트 베이비 베이비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살구 향의 향수다. 이름은 베이비지만, 보틀 박스 패키지에 새겨진 요염한 여인 일러스트로 짐작할 수 있듯, 소녀 같지만 섹시한 '베이글녀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관능적인 향이 돋보인다. 합리적인 가격대로 오직 한국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점도 특별하다. 50ml 4만4천원. 문의 080-001-2363 *_by 에디터 권유진*

톰 포드 뷰티 베네시안 베르가못 전설적인 디자이너 톰 포드가 이탈리아 남부를 여행하며 받은 영감으로 완성한 신선한 느낌의 향수. 최고급 성분만 사용하기로 유명한 향수이기에 다소 대중적인 베르가모트와 우디 향을 담았지만 순수함과 감각적인 배합이 남다르다. 지속력이 뛰어난 오드 퍼퓸 타입이다. 50ml 27만원. 문의 02-3479-1436 *_by 에디터 배미진*

THE RENEWAL OIL

매일 새로운 피부를 위한 놀라운 변화, 럭셔리 안티에이징 오일

신제품 리뉴얼 오일은 해초 발효 원액인
미라클 브로스™와 안티에이징 오일의
혁신적인 이중구조가 피부 깊숙이
빠르게 풍부한 영양을 전달합니다.
피부는 탄력 있고 탱탱하게
젊음의 기운으로 차오릅니다.
놀랄 만큼 부드럽고 건강하게 빛나는
피부를 경험해 보세요.

www.lamerkorea.com
www.facebook.com/LaMerKorea

LA MER

the renewal oil
l'huile régénérante

LA MER

신세계백화점 본점 02-310-5086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3477-4088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02-2639-4137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 051-745-2288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062-360-1265
롯데백화점 본점 02-772-3501 롯데백화점 잠실점 02-2143-1751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051-810-4195 롯데백화점 청담점 055-279-3703 갤러리아명품관 WEST 02-3446-3022 갤러리아 타임월드 042-720-6191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02-3438-6080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3467-8415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031-622-3154 현대백화점 대구점 053-245-2137 현대백화점 판교점 031-5170-2116 AK PLAZA 분당점 031-781-8941

In late Autumn

1970년대 레트로 스타일을 가미한 뉴 룩. 슬림한 라인, 심플한 디자인, 고급스러운 소재로 기품 있고 단정한 스타일을 완성했다. *photographed by* **magnus reed**

립 조직의 울 소재 드레스 **Stella McCartney.**
덧입은 플리츠스커트 **Liu Jo Jeans.**
부츠 **Jil Sander.**

불규칙한 패턴의 패치워크 레더 코트 **Calvin Klein Collection.** 울 팬츠 **Marni.**

가죽 디테일이 돋보이는 저지 드레스, 목걸이로 활용한 실버 벨트 모두 **Louis Vuitton.**

오버사이즈 코트 셔츠 **Dior.** 울 터틀넥 스웨터 **Miu Miu.** 코팅 처리된 독특한 소재의 랩스커트 **iBlues.** 울 레깅스 **Gentryportofino.** 스웨이드와 가죽을 믹스한 부츠 **Jil San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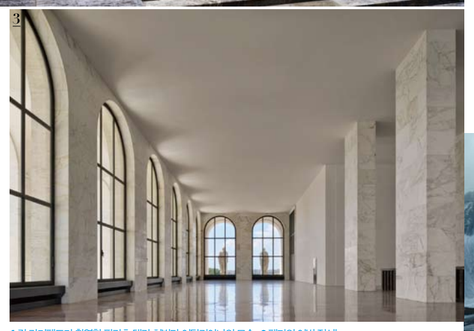
복고풍의 셔츠 칼라 코트 **Fendi.**
울 터틀넥 스웨터 **Pinko.**
실버 네크리스 **Tiffany & Co.**
실버 이어링 **JW Anderson.**

스트라이프 패턴의 모헤어 코트 **Herno.**
코튼 셔츠, 부츠 모두 **Dior.**
레더 벨트 **Salvatore Ferragamo.**
실버 이어링 **JW Anderson.**

울 터틀넥 스웨터 **Pinko.** 서로 다른 질감의 가죽을 매치한 스커트 **Fendi.** 숄더백 **Chanel.** 목걸이 **Saint Laurent by Hedi Slimane.**

벨트로 장식한 붉은색 니파 레더 재킷 **Valentino.** 가죽 부츠 **Pollini.**

헤어 **Hauke Krause**
메이크업 **Ewa Cervena**
스타일리스트 **Silvia Meneguzzo, Francesca Ferretti**



new nest on History

수천 년간 이어온 로마의 유구한 역사와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탈리아의 기념비적인 건축물에 새로운 둥지를 튼 펜디. 이탈리아의 문화유산을 향한 이들의 경의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펜디, 로마 역사의 현장에 새 둥지를 트다

7개의 언덕, 그 중심을 가로지르는 티베르(Tiber) 강,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좁은 길, 유구한 역사가 남긴 수많은 문화유산. 유럽 문명의 요람으로서 '영원의 도시'라 불리는 그곳, 로마에서 흥미롭고도 의미 있는 이벤트가 시작된다. 2015년 10월 23일부터 2016년 3월 7일까지 개최되는 〈Una Nuova Roma, L'Eur e il Palazzo della Civiltà Italiana〉展이 그것. 로마는 크게 역사의 중심지로서 관광객들이 줄을 이어 찾는 구로마와 에우르(E.U.R)라고 부르는 신로마로 구분되는데, 로마 시내 남쪽 에우르 지역의 건축물 팔라초 델라 치빌타 이탈리아나(Palazzo della Civiltà Italiana)에서 전시가 열린다. 이 전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20세기 로마 건축물의 아이콘으로 간주되는 팔라초 델라 치빌타 이탈리아나의 장소적 특별함과 바로 이곳에 펜디 본사가 새로운 둥지를 튼다는 사실 때문이다. 브랜드의 뿌리이자 문화적 근원이 되는 로마를 위해 트레비 분수 복원 비용 2백1 2만유로(31억 상당)를 지원하고 콰트로 폰타네 분수 재건 비용 역시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펜디가 이번에는 팔라초 델라 시빌타 이탈리아에 역사적 가치를 부여하고자 에우르 지역구와 15년 협정을 맺고 지원 사격에 나선 것. 에우르 지역은 1942년에 열릴 국제 전시회를 위해 1937년 이탈리아의 총리 베니토 무솔리니의 주도하에 신도시 조성이 계획됐던 곳이다. 에우르라는 이름도 '로마만국박람회(Esposizione Universale di Roma)'의 약자에서 비롯됐다. 고대 로마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성대한 프로젝트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에우르 관련 프로젝트는 자연스레 중단되고 로마만국박람회 역시 무산되었다. 팔라초 델라 치빌타 이탈리아나는 전쟁에 집중하느라 건축을 제한하던 시절에 완공된 몇 안 되는 빌딩 중 하나인 만큼 건물에 담긴 역사적, 건축적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당시 유명 건축가 조반니 게르니(Giovanni Guerrini), 에르네스토 브루노 라 파둘라(Ernesto Bruno La Padula), 그리고 마리오 로마노(Mario Romano)가 지은 이 정사각형의 건물 외관에는 동상 28개가 있는데, 이는 이탈리아인의 천분한 예술과 공예를 상징한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동상은 장인 정신, 일, 철학, 상업, 산업, 고고학, 역사, 발명, 건축, 법률, 조각, 연극, 언론, 의학, 지리, 시, 그리고 그림 등을 의미한다. 꼭대기 외벽에는 '시인, 예술, 영웅, 성도, 사상가, 과학자, 항해사, 이민자들이 가득한 나라(un popolo di poeti di artisti di eroi / di santi di pensatori di scienziati / di navigator di transmigratori)'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고대 로마와 그리스 건축양식, 당시의 현대 건축양식이 결합된 이 건물은 완공 이후 콜로세움 광장, 근대화 건물로 불리며 로마인들의 사랑을 받아왔고, 현대에 와서는 이탈리아 합리주의 건축의 대표 주자로 통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는 건축물이다. 사실 이 건물의 이미지와 기능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 이후 방치될 운명에 처한 에우르가 로마 정부의 결정 덕에 신도시로 부활한 덕분이다. 1930년대 말에 계획한 건축물들이 1950~60년에 차례로 완성되고 기적적인 경제성장까지 뒷받침되면서 완전한 신도시로서의 향태와 역할을 갖춰간 것. 오랜 시간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탈리아 장인 정신과 창조성의 상징이자 앞으로 펜디가 새로운 역사를 쓰나갈 안식처인 팔라초 델라 치빌타 이탈리아나. 과거의 유산을 숭고하게 이어나가겠다는 이탈리아 브랜드이자 로마에 본사를 둔 펜디의 의지를 반영한 이번 전시가 기대되는 이유다.

전시, 이탈리아 디자인과 예술을 말하다

이번 전시는 팔라초 델라 치빌타 이탈리아나라는 기념비적 건물을 대중에게 다시 소개하고 알림으로써 이탈리아 장인 정신과 독창적인 디자인, 예술 세계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시는 고전주의와 현대주의, 이탈리아 역사와 사회의 변화를 그대로 대변하고 재생하는 이 건축물 1층에서 열리는데, 규모만 해도 1,000㎡에 달한다. 펜디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칼 라거펠트는 이 건물을 처음 보았을 때 초현실주의 이탈리아 화가 조르조 데 키리코(Giorgio de Chirico)의 작품이 현실에서 펼쳐진 것 같았다고 밝힐 정도로 과거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거기에 당시의 페인팅과 사진, 필름, 글귀 등을 통해 이 건축물의 스토리를 눈과 귀로 직접 확인하고 느껴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탈리아 미래파 화가 지노 세베리니(Gino Severini)와 마리오 시로니(Mario Sironi), 오페라와 발레 무대 디자인 작업 외에 건축, 회화, 의상 스케치 등 다방면으로 활동한 아티스트 엔리코 프람폴리니(Enrico Prampolini), 조각가이자 화가 프란체스코 메시나(Francesco Messina) 등의 다양한 작품을 비롯해 이탈리아 대표 구상 조각가 페리클레 파치니(Pericle Fazzini)의 1950~60년대 작품 역시 전시장에 자리할 예정이다. 펜디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칼 라거펠트와 세계적인 건축 사진가 기브리엘레 바질리코(Gabriele Basilico), 이탈리아 사진작가 파브리지오 페리(Fabrizio Ferri), 1960년대 강렬한 선과 면, 혹은 강렬한 보색대비로 이름을 알린 사진작가 프랑코 폰타나(Franco Fontana) 등이 촬영한 에우르 지역의 사진과 팔라초 델라 치빌타 이탈리아나 사진도 함께 전시한다. 이외에 신도시 창조와 확산에 기여한 영화감독들의 작품도 상영할 예정이다. 로베르토 로셀리니(Roberto Rossellini), 페데리코 펠리니(Federico Fellini), 비토리오 데 시카(Vittorio De Sica),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Michelangelo Antonioni) 등의 감독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로마의 깊은 뿌리, 이탈리아의 독창성과 장인 정신, 전통과 현대의 지속적인 결합. 펜디가 추구하는 이 같은 가치를 대변할 펜디 본사의 새 보금자리이자 대중과 소통하는 상징적인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할 팔라초 델라 치빌타 이탈리아나에서 앞으로 어떤 역사가 만들어질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문의 02-2056-9023 에디터 **배미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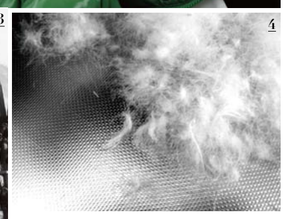
1 칼 라거펠트가 촬영한 팔라초 델라 치빌타 이탈리아나의 모습. **2** 펜디의 이번 전시는 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반인에게 공개될 예정. **3** 로마 고유의 아름다움을 지닌 팔라초 델라 치빌타 이탈리아나 내부. **4** 1940년 새로운 비전을 담아 계획했던 로마의 새로운 모습.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현되지 못했다. **5** 펜디 덕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에우르 지역. 이 파노라마 사진은 1940년에 촬영한 것이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클래식한 체크 패턴을 접목한 남성 패딩. 포켓 디자인이 실용적이면서도 멋스럽다. 2백12만원. 따스한 브라운 계열의 체크 패턴과 테이프 처리한 지퍼 장식이 눈에 띄는 그레노블 컬렉션 남성 스키복 패딩 점퍼 3백72만원. 사랑스러운 사슴 뱀비를 연상케 하는 도트 패턴의 키즈용 양말 패딩 1백56만원. 광택감이 도는 소재가 세련된 느낌을 주는 여성 미디엄 패딩. 네크라인에 풍성한 여우 털을 덧대 럭셔리함을 강조했다. 2백73만원. 모두 **몽클레르.**

Winter chic

현대적이면서도 유행을 타지 않는 심플한 디자인 덕에 5년, 10년을 두고 입을 수 있는 몽클레르. 다운 점퍼에 '럭셔리' 이미지를 부여하고 실용성과 가벼움, 우아함이라는 3박자의 완벽한 조화로 겨울 휴양지는 물론 도심에서도 사랑받는 몽클레르에서 제안하는 하이엔드 윈터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1 환상적인 무드가 감도는 몽클레르의 2015 F/W 광고 캠페인. **2** 장인의 손길로 완성되는 몽클레르 패딩의 작업 과정. **3** 몽클레르 점퍼를 입고 스키를 즐기고 있는 재키 캐네디. **4** 몽클레르는 물새에서 얻은 최상의 가슴 털을 완벽하게 실군·건조한 후 사용해 실루엣이 가장 이상적인 패딩을 선보인다. **5** 마치 니트와 같이 짜임 디테일이 유니크한 벨트 장식의 여성 스키 웨어 스타일 점퍼 49만원 몽클레르 그레노블.



평범한 아우터 웨어를 명품 패션으로 변신시킨 몽클레르

일상복과 아웃도어 웨어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제대로 된 아우터의 활용도는 TPO(시간, 장소, 상황)를 넘나든다. 특히 겨울철, 보온성과 함께 스타일까지 만족시키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 지금이야 고급 패딩이 밍크 코트를 대신하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이러한 트렌드가 생소했던 때 다운 패딩 열풍을 확산시킨 것은 몽클레르였다. 니콜라 제스키에르, 준야 와타나베, 펜디, 지암바티스타 발리, 톰 브라운 등 당대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와 협업하면서 그저 아웃도어 점퍼에 불과했던 다운 재킷을 최고의 럭셔리 패션 아이템으로 등극시킨 것. 따뜻하지만 부담스러운 볼륨감으로 외면받았던 패딩 제품에 완벽한 기능성과 슬림함을 부여했고, 지퍼 대신 단추를 사용했으며, 새틴 양면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패브릭을 사용하거나 모피를 덧대 고급스러움을 부각하는 등 과감한 변신을 통해 새로운 것에 목말라하는 전 세계 패션 피플과 셀러브리티를 열광시켰다. 스키용이나 등산용으로 치부되던 다운 웨어가 파리, 밀라노, 뉴욕 등 도시를 활보하는 시티 룩으로 탈바꿈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사실 몽클레르가 처음부터 다운 점퍼만 전문적으로 다뤘던 것은 아니다. 1933년 브랜드가 탄생할 당시에는 스키 장비, 텐트 등 스포츠용품을 전체적으로 아울렀다. 몽클레르라는 이름도 공장이 위치했던 프랑스 그레노블 인근 산촌인 '모네스티에르 드 클레르몽(Monestier de Clermont)'의 앞 글자에서 따왔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캠핑, 텐트 장비 생산으로 명맥을 유지하던 몽클레르는 1952년 공장에서 혹독한 겨울을 보낼 직원을 위해 보온성 좋은 점퍼를 제작했는데, 이것이 다운 점퍼의 시초였다. 이후 전문 산악인 라이오넬 테레이가 입으면서 입소문이 났고, 1968년 그레노블 동계 올림픽에서 프랑스 스키팀의 유니폼 제작을 맡아 보온성이 좋지만 얇고 움직임이 편한 스포츠 웨어를 완성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몽클레르는 세계 최초로 나일론과 다운으로 된 퀼팅 재킷을 만든 브랜드이기도 하다. 완벽한 다운 재킷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운을 채우기에 가장 이상적인 모양으로 패브릭을 커팅하는 방법,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 남부와 폐리고리 지방에서 자라는 물새에서 얻은 최상의 가슴 털을 완벽하게 살균·건조하는 방법 등 다양한 노하우가 필요하다. 거기에 다운을 고르게 채우면서도 실루엣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브랜드의 기본 철학을 그대로 고수한다.

시티 룩으로도 손색없는 스키 웨어 '그레노블' 컬렉션

디자인과 기능, 소재 모두를 만족시키는 가장 완벽한 제품은 실제 겨울이 되면 쇼윈도에서 볼 수 없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스마트한 쇼퍼들이 겨울이 채 되기 전에 월동 준비를 마치기 때문이다. 매년 몽클레르의 인기 제품이 추위가 찾아오기도 전에 동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똑똑한 쇼핑을 위해 남들보다 앞서 주목해야 할 라인은 몽클레르의 '그레노블 컬렉션'이다. 도심에서도 착용 가능한 하이엔드 스키 웨어 라인으로 혹독한 추위에도 끄떡없는 보온성, 탁월한 방수 기능과 통기성과 더불어 우아함과 세련미를 잃지 않은 디자인이라 멋스럽고 실용적인 데이 웨어로도 그만이다. 여기에 스키 웨어의 안전성을 고려해 지퍼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윈드 플랩, 스키 패스를 위한 포켓, 선글라스를 보관할 수 있는 포켓 등 작은 디테일까지 꼼꼼하게 마무리해 기능적으로도 완벽한 스키 웨어의 정수를 보여준다. 2015 F/W 그레노블 컬렉션은 뉴욕 브루클린에서 '러브 팩토리'라는 주제 아래 모습을 드러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를 재조명한 레트로 스타일을 바탕으로, 보디라인을 자연스럽게 강조하는 실루엣이 일품이다. 또 레깅스나 퀼팅 팬츠, 몽골리안 퍼로 장식한 의상을 비롯해 양가죽이나 염소가죽, 기능성 울을 활용한 룩부터 노르딕 모티브의 니트 웨어까지 다양한 아이템으로 선보여 고르는 재미와 보는 재미를 더한다. 유광 블랙과 강렬한 알렉트릭 옐로 컬러의 대조적 매치가 키네틱 페인팅 운동이 활발하던 1960년대를 상기시키고, 어슴푸레한 밤안개를 연상시키는 그레이부터 에너지로 가득 찬 듯한 포레스트 그린 등 다양한 컬러 팔레트는 스키 리조트 주변의 대 자연을 품은 것처럼 느껴진다. 새틴 시 다운이 손실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열 캘린더링(hot calendering) 작업을 견디는 소재란 선택하고, 다양한 의류의 액세서리를 과도하거나 무겁지 않게 디자인하는 것도 몽클레르만의 노하우이자 고집스러운 철학이다. 대부분의 스키 웨어를 기본에 넣어 이동 또는 보관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요소는 그레노블 라인을 가장 완벽한 여행 동반자로 만들어준다. 가령 이런 국내외 스키 리조트로 떠날 때, 혹은 윈터 스포츠를 즐길 때 가족과 함께 패밀리 룩을 연출해보는 건 어떨까. 몽클레르는 양팡 라인도 갖추고 있어 엄마와 딸, 아빠와 아들이 따뜻하고 세련된 커플 룩으로 연출하기에도 그만이다. 덴마크 왕실의 이자벨라 공주와 크리스틴 왕자, 쌍둥이 동생인 빈센트와 조세핀, 노르웨이의 메테마리트 왕세자비 등을 비롯해 네덜란드나 모나코, 스웨덴의 왕가에서도 선택한 브랜드인 만큼, 소중한 아이에게도 훌륭한 겨울 방어막이 되어줄 것이다. 문의 02-514-0900 에디터 **권유진**

행복한 식사, 디자인에 요리를 담다

디자이너는 부엌에서 영감을 얻는다? 디자인은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부엌과 식사에서 디자이너의 명작이 탄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먹고 마시는 인류의 단순한 행위를 통해 빛나는 영감을 받은 디자이너의 작품을 통해 '부엌'의 의미를 되새겨보자.

1 토마스 알론소가 스페인 전통 테이블 세팅을 새롭게 해석해 디자인한 '엘리베이션 수르 테이블(Elevation sur Table)'. 포슬린, 실버 같은 전통 재료로 새로운 격식을 제안한다. 2, 3 페란 아드리아 셰프는 향기를 맡으며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스푼, 후배 요리사들이 플레이팅을 습득할 수 있는 요리 모형 등의 디자인에 직접 참여했다. 4 미슐랭 3 스타 셰프인 로카 형제의 디저트 카트 '로카 온 휠스(Roca on Wheels)'. 5 비정형 건축으로 유명한 자하 하디드의 'WMF 커틀러리(WMF Cutlery)'. ©Photograph by David Grandorge 6 1920년대 오스트리아 최초의 여성 건축가 마가레트 슈테-리호츠키가 디자인한 '프랑크푸르트 부엌'. ©금호미술관 7 이탈리아의 디자인 거장 엔조 마리의 그릇. 도자기 그릇을 만드는 근로자의 우울한 노동 패턴을 혁신하기 위해 만든 디자인이라 뜻깊다. 8 전잔현 디자이너는 음식 맛을 보다 깊이 음미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숟가락 디자인에서 벗어난 작품을 선보인다. 9 전미선 작가는 음식 종류에 따른 1백20여 가지 디자인의 젓가락을 제안한다. 10 알레산드로 멘디니는 전 여자 친구 안나와 자신을 모티브로 해 주방용품 시리즈를 디자인한 바 있다. 11 한국자수박물관은 과거 어머니들이 자투리 천을 모아서 만든 보자기를 컬렉션한다.

미슐랭 3 스타 셰프는 왜 디자이너가 되었나?

스페인에서는 요리사도 디자인을 한다. 최근 스페인 요리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데에는 요리사들이 주방용품을 디자인한 것도 큰 영향을 준 것 같다. 그 유명한 레스토랑 '엘 불리(El Bulli)'의 페란 아드리아와 미슐랭 3 스타 레스토랑 '엘 셀러 드 칸 로카(El Celler de Can Roca)'를 함께 운영하는 삼 형제 조안 로카, 조셉 로카, 조르디 로카 등 스페인의 유명한 셰프들은 본인이 직접 디자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디자이너와 협업해 자신의 요리와 스페인 요리를 더욱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개최한 〈스페인 음식 디자인〉전을 기획한 큐레이터 줄리 카펠라는 엘 불리 셰프 페란 아드리아의 전성기를 중심으로 스페인의 디자인이 새롭게 탄생했다고 예찬한다. 지금은 레스토랑을 재단으로 바꾸기 위해 엘 불리의 문을 닫았지만, 2011년 이전에는 매년 1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요리를 맛보기 위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곤 했다. 페란 아드리아 셰프는 1997년부터 디자이너와 협업했다. '요리는 음식을 디자인하는 것'이라는 신념을 가진 그는 자신의 요리에 독창성을 부여하기 위해 먼저 그릇에 관심을 가졌다. 스페인 디자이너 에스더 산 마얀, 라파 마테오, 마구엘 가소에게 커피와 함께 제공하는 작은 쿠키 디저트 프티푸르(petits-fours)를 담는 그릇을 요청했고, 종이접기에서 영감을 얻어 금속 세트를 만들었다. 이후 페란 아드리아는 엘 불리만을 위한 디자인과 소비자를 위한 판매용 디자인이라는 2개의 주제 아래 디자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

2001년에는 아예 디자이너 루키 후버가 레스토랑의 일원이 되어 흥미로운 디자인을 쏟아냈다. 가다랑어회와 앵두 같은 작은 음식을 특별히 디자인한 스푼에 담아 서브하는 것도 엘 불리에서 최초로 시도한 것이다. '땅콩 포마드와 벌꿀 토스트'처럼 튜브에 소스를 담아 고객이 직접 소스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아이디어, 캐비아 케이스를 본떠 멜론으로 캐비아 형태의 음식을 만드는 유머러스한 요리 기구, 즉석에서 스파게티 면을 만들 수 있는 길이 5m의 튜브 등이 유명하다. 페란 아드리아는 그릇과 커틀러리 디자인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페란 아드리아와 디자이너 겸마 베르날이 함께 만든 사각형 접시와 스푼으로 구성된 올라 컬렉션은 세계의 많은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유명한 제품이 되었다. 거르개 숟가락, 디저트 숟가락, 아이스크림 숟가락, 집게 숟가락으로 구성된 커틀러리 세트 '엘 불리 컬렉션'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허브를 스푼 중앙 집게에 끼워 향기를 맡으면서 요리를 음미할 수 있는 집게 숟가락은 간단하면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품이다.

로카 삼 형제와 스페인의 젊은 셰프들

엘 불리는 문을 닫았지만 그곳에서 일했던 셰프 호세 안드레스와 페란 아드리아 셰프의 동생 알베르트 아드리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티케츠', 그리고 스페인의 젊은 요리사들은 주방 관련 용품 디자인에 대한 열정을 이어받았다. 스페인 키친 디자인의 시작을 페란 아드리아가 이끌었다면, 21세기는 미슐랭 3 스타 레스토랑 '엘 셀러 드 칸 로카'를 운영하는 삼 형제 요리사 조안 로카, 조셉 로카, 조르디 로카가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로카 형제의 디자인 대표작 중 하나는 '메시의 골과 '아바나 여행'이다. '메시의 골'은 디자이너 안드레우 카루아와 협업해 만든 것인데, 화이트 초콜릿 그릇에 골이 회전해 들어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디저트다. '아바나 여행'은 모히토 잔과 시가 모양을 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시가 향을 담은 얼린 디저트라는 기발함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렇지만 로카 형제의 가장 놀라운 디자인 작품은 '엘 솜니(꿈)'가 아닐까 싶다. 이는 12코스 요리를 종합예술 체험으로 즐기게 한 것인데, 미술, 영화, 책, 오페라까지 포함되어 있다.

호세 안드레스 셰프는 미국으로 건너가 '할레오' 등 여러 곳의 스페인 요리 레스토랑을 오픈해 스페인 요리의 매력을 알렸다. 그의 레스토랑은 스페인 디자인 작품으로 인테리어했으며 요리도 마찬가지다. 타파스를 먹으며 테이블 축구를 할 수 있게 만든 '테이블 축구 테이블'과 유리로 만든 컨버스 신발에 담은 튀김 요리 '테니스 슈(Tennis Shoe)' 등이 유명하다. 지면에 다 싣기 어려울 정도로 스페인 요리사와 디자이너의 활약은 방대하다. 결론적으로 스페인 요리의 위력은 요리사가 디자인에 참여한다는 데서 비롯됐다고 설명할 수도 있겠다(www.kf.or.kr).

자하 하디드가 부엌에 들어간 이유

DDP(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설계한 건축가 자하 하디드도 스푼과 포크 등 커틀러리에서부터 꽃병, 센터 피스, 실버 플레이트, 테이블과 의자 등 독창적인 식사를 위한 다양한 작품을 창작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가임에도 여성으로서 유리 천장에 시달린다고 토로한 적 있는 자하 하디드는 주방에 들어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듯 보인다. 자하 하디드가 디자인한 주방용품은 그녀의 비정형 건축물을 연상시키는데, 언젠가 그녀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싶다는 원대한 꿈을 가진 이들의 첫 번째 컬렉션으로 손색이 없다. 블랙 컬러 멜라민으로 만든 컴포넌트 5개로 구성한 '니체(Niche)'는 찰싹 붙여놓아도 좋고, 간격을 두어 자신만의 모양으로 배치해도 좋다. 초콜릿 디저트나 작은 요리를 올리면 어울릴 만한 현대적인 센터 피스다. '티 & 커피 세트(Tea & Coffee Set)'는 조각 작품처럼 보인다. 티 포트, 커피 포트, 우유와 설탕 단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4개가 파즐처럼 이루어져 테이블 위에 배치하는 재미가 있다. 마치 테이블 위에서 도시 풍경을 이루는 건축물을 보는 것 같기도 하다. 'WMF 커틀러리(WMF Cutlery)'는 왜 몇 세기 동안 전해 내려온 스푼과 포크 디자인에 변화를 줘야 되는지 반문하는 이들에게 좋은 대답이 될 것 같다. 원을 이루지 않는 스테인리스 스틸 스푼이 특히 독창적이다.

엔조 마리와 알레산드로 멘디니의 신념을 주방용품에 담다

많은 디자이너들의 존경을 받는 이탈리아 디자이너 엔조 마리 역시 부엌에서 많은 영감을 얻어왔다. "인간이 서로 평등할 것. 그것이 나의 신념이다"라고 말하는 엔조 마리에게 플라스틱은 특히 매력적인 소재였다. 플라스틱은 첨단 기술을 접목해 기존 소재로는 실현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나 기능을 더할 수 있고,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소재 컬렉션 중에서 '자바(Java)' 컨테이너가 특히 유명한데, 다른 부품과 연결하지 않고 본체, 덮개 두 부분만으로 이루어진 독창적인 음식 저장 용기다. 합리적 절차를 통해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길 원했던 엔조 마리의 디자인 철학을 잘 반영한 제품이다. 그는 이외에도 플라스틱으로 과일 그릇과 촛대, 얼음통, 꽃병 등을 만들었다. 스테인리스 스틸도 즐겨 사용했는데, 제품을 본질에 가까우면서도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소재였기 때문이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만드는 사람까지 배려하는 엔조 마리의 생각이다. 디자인이란 100% 사용자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원래 도자기에 관심이 없었던 그는 공장에서 그릇을 만드는 근로자들의 우울한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제품을 완성할 때 느끼는 희열을 선사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도자기 소재 디자인에 뛰어들었다. 그리하여 위트 있으면서도 우아한 도자기 접시 '사모스 모델 S(Samos Model S)', '사모스 모델 E(Samos Model E)' 등을 완성했다. 대리석 화병인 '파로스 시리즈(Paros Series)'는 대리석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카라라 지방 근로자를 위한 디자인으로, 누가 만들어도 일정하게 높은 수준의 제품을 대량생산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www.ddp.or.kr).

마침 엔조 마리와 더불어 생존하는 위대한 이탈리아 디자이너 중 한 명으로 일컬어지는 알레산드로 멘디니 전시가 DDP에서 열리고 있다. 알레산드로 멘디니는 네덜란드 흐로닝언 미술관, 일본 히로시마 파라다이스 탑 같은 건축물과 컬러감이 인상적인 푸르스트 의자, 삼성 기어 S2 등을 디자인했다. 그렇지만 뭐니 뭐니 해도 그의 대표작은 여전히 와인 오프너 '안나 G(Anna G)'다. 전 여자 친구 안나에게 영감을 얻어 만든 와인 오프너가 큰 인기를 끌어 병마개, 타이머, 캔들, 후추 그라인더, 케이크 스탠드 등도 연달아 선보였다. 2014년에는 안나 G 출시 20주년 기념 한정판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안나 시리즈와 세트 개념으로 자신의 모습을 소재로 한 '알레산드로 M(Alessandro M)' 와인 오프너와 모카 포트도 디자인했다. 전시를 기념해 한국을 찾은 그는 자신이 '기능적인 디자인보다 '아름다운 디자인'을 추구하고, 인간 형상을 한 디자인에 인격을 부여해왔음을 강조했다. 사람 모습을 한 디자인 제품을 통해 사용자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거장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다. 그는 우리가 자신의 제품과 함께 식사를 하고 와인을 마실 때마다 더욱 행복해지기를 바란다(www.mendini.co.kr).

20세기 밥멍덕과 21세기 숟가락, 젓가락

우리나라에도 예로부터 부엌에서 유래된 독창적인 디자인이 있었다. 한복을 만들고 남은 천으로 만든 상보, 외출 나간 식구의 밥을 아랫목에서 따뜻하게 보관하기 위한 밥멍덕, 예술 작품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아름다운 감촉 등이 바로 그것이다. 과거 이름 모를 여인들의 디자인 감각이 담긴 자수품을 컬렉션하는 한국자수박물관의 허동화 관장은 세계 각국의 뮤지엄에서 이를 순회 전시해 찬사를 받고 있다고 했다. 자수 컬렉션은 쓰임새와 디자인도 빼어나지만, 과거의 디자인 작품에 한 여인의 일생이 담겨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혼례를 앞두고 한복을 만들고 남은 천, 부모와 자녀와 손주의 한복을 만들고 남은 천을 차곡차곡 모아서 만든 상보와 밥멍덕을 들여다보면 과거의 즐거운 일, 힘든 일이 하나둘 떠오르곤 했으리라(www.bojagii.com).

당당히 자신을 이름을 걸고 활동하는 우리나라 젊은 디자이너들의 빼어난 감각은 과거 이름 없는 이러한 여인들의 디자인 유전자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최근 전진현, 전미선 디자이너가 커틀러리 디자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전진현 디자이너는 식도구가 감각을 자극하는 새로운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디자인을 한다. 작가는 소리를 색으로 보거나 움직임에서 소리를 듣는 교차된 감각을 경험하거나 후천적으로 하나의 감각이 특별히 강화된 공감각자를 인터뷰하며 영감을 얻기도 한다. 작품 중 주목받는 것은 숟가락이다. 단순히 동그란 숟가락에서 벗어나 작은 돌기가 난 숟가락을 디자인해 음식이 입안에 더 오래 머물게 하거나, 사탕같이 붉은빛을 내는 식기도 식욕을 돋운다는 평이다. 네덜란드에서 활동하는 작가는 미슐랭 스타 셰프들과 공감각 식사 이벤트도 개최하고 있다(jjhyun.com).

반면 전미선 디자이너는 젓가락에 몰두한다. 음식 종류는 다채로운데 하나의 젓가락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에 의문을 가진 작가는 메뉴에 따른 젓가락을 제안한다. 중국 음식은 뜨겁고 면류가 많기 때문에 젓가락이 길고 두툼하다. 해산물 요리가 많은 일본 음식은 젓가락 위주로 먹기에, 그릇을 들고 먹기 쉽게 길이가 짧고 끝이 뾰족하다. 이외에 부드러운 두부를 쉽게 먹을 수 있는 젓가락, 미끄러운 해조류를 먹기 위한 것 등 그녀의 젓가락 디자인은 무려 1백20여 가지에 달한다. 작가가 제안하는 특별한 경험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한 끼에 수십 가지 젓가락을 사용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쯤 되면 큐레이터 줄리 카펠라가 디자인을 배제한 식사는 즐거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한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단지 생존하기 위해 먹는 하루 세끼 식사가 어떻게 즐거울 수 있을까? 아티스트의 디자인과 함께라면 매일 행복한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식사 즐겁게 하세요! 부엔 프로베초(Buen Provecho)!

글 **이소영**(〈사진 미술에 중독되다〉, 〈서울, 그 카페 좋더라〉 저자)

SHOWROOM

무이

타임 옴므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조르지오 아르마니

랄프 로렌

덱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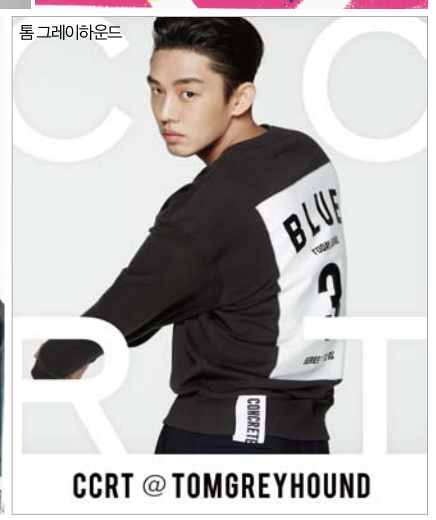
더 캐시미어

일레븐티

브리오니

란스미어

보테가 베네타



톰 그레이하운드

아뜰리에 에르메스

몽클레르

센존

DVF

타임 옴므 레더 스웨이드 스니커즈 타임 옴므에서 스웨이드 디테일이 포인트인 레더 스웨이드 스니커즈를 제안한다. 보디의 디자인과 포인트 컬러의 조합이 특징이며 내피는 천연 가죽으로 이루어져 착용감이 편안하다. 리치한 블랙과 오트밀 컬러로 구성되며 타임 옴므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16-4394

무이 빌리어네어 보이즈 클럽X일리어네어 레코즈 컬래버레이션 무이는 하이엔드 스트리트 웨어 브랜드 빌리어네어 보이즈 클럽과 힙합 아티스트 도끼, 더 콰이엇, 빈지노가 소속된 일리어네어 레코즈의 협업으로 제작한 익스클루시브 스웨트셔츠와 스냅백을 선보인다. 이번 컬래버레이션 제품들은 9월 중순부터 무이 청담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과 판교점에서 한정 수량으로 판매된다. 문의 02-3446-8074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2015 F/W 광고 캠페인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아름다움을 담은 F/W 광고 캠페인을 공개한다. 패션 사진가 한스 페러가 참여한 이번 광고 캠페인은 밀라노의 상징인 두오모 광장, 몬테 나폴레오네 거리, 그리고 도무스 뮤지엄을 배경으로 콜롬보의 정통성과 함께 한층 젊어진 감성의 변화를 추구하는 브랜드의 철학을 담고 있다. 문의 070-7130-9200

조르지오 아르마니 2015 F/W 컬렉션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2015 F/W 컬렉션을 통해 성의 경계를 벗어난 젠더리스 패션을 선보였다. 디자이너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여성들도 남자처럼 옷을 입고 싶어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남성복에 쓰는 소재를 여성복에 접목했고, 조금 크지만 멋스러운 것이 특징이다"라고 이번 컬렉션을 설명했다. 쌍둥이처럼 같은 룩을 입고 등장한 남녀 모델이 눈길을 사로잡았으며, 특히 편안하면서도 모던한 실루엣의 여성 재킷은 이번 시즌 주목해야 할 키 아이템이다. 문의 02-549-3355

랄프 로렌 단독 폴로 스토어 오픈 랄프 로렌은 한국 최초이자 전 세계 여덟 번째 폴로 프리 스탠딩 스토어를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오픈했다. 정통 미국 헤리티지 스타일의 로프트에서 영감을 받아 높은 천장과 열린 느낌으로 시원하게 연출했다. 1층과 2층에서는 젊고 트렌디한 남성 컬렉션을, 3층에서는 드레스와 데님이 포함된 여성 컬렉션을, 4층에서는 키즈 컬렉션을 선보인다. 문의 02-6004-0220

덱케 뉴 레슬리 백 송치 덱케에서 시그너처 라인인 레슬리의 2015 F/W 뉴 버전 '뉴 레슬리 백 송치'를 소개한다. 송치와 카프 소재를 사용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하며 백의 잠금 디테일을 업그레이드해 안정감과 완성도를 높였다. 컬러는 와인과 그린으로 구성했으며, 오는 11월부터 덱케 플래그십 스토어와 전국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519-8123

더 캐시미어 오버사이즈 니트 톱 & 울 스트링 팬츠 더 캐시미어에서 디자인이 감각적인 오버사이즈 니트 톱과 울 팬츠를 선보인다. 오버사이즈 니트 톱은 스코틀랜드 캐시미어 원사를 100% 사용해 부드러운 터치감과 자연스러운 오버사이즈 핏을 연출한다. 울 팬츠는 울 100%로 제작했으며 웨이스트 라인에 스트링을 달아 편의성을 더했다. 문의 02-3416-4397

일레븐티 헤링본 더블 코트 일레븐티는 클래식한 감성을 담은 헤링본 더블 코트를 선보인다. 울의 부드러운 질감과 미니멀한 디자인에 헤링본 패턴을 더해 고급스러운 느낌과 클래식한 멋을 동시에 선사한다.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을 포함한 전국 일레븐티 매장에서 판매한다. 문의 02-3449-5360

브리오니 2015 F/W 광고 캠페인 브리오니가 2015년 F/W 시즌 광고 캠페인 '더 아티스트(The Artists)'를 공개했다. 존 암리더를 포함한 아티스트 4명의 모습을 통해 카리스마 넘치는 매력과 문화 예술에 대한 이해를 겸비한 브리오니맨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투영하고 있다. 남성의 우아함과 예술적 감각을 담은 이번 컬렉션은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신세계백화점 본점 등 브리오니 부티크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274-6483

란스미어 한남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란스미어가 오픈 10주년을 맞이해 한남동에 두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 '란스미어 한남'을 오픈한다. 다양한 소재와 스타일을 제안하는 비스포크 존, 새롭게 선보이는 컬처 & 스포츠 존을 포함한 10가지 존으로 구성된다. 이곳에서는 주류를 포함한 음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남성을 위한 전문 플라워숍이 입점되어 있다. 문의 1599-0007

보테가 베네타 〈보테가 베네타: 아트 오브 콜라보레이션〉 보테가 베네타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시즌별 광고 캠페인을 담은 〈보테가 베네타: 아트 오브 콜라보레이션〉을 출간한다. 이 책은 보테가 베네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토마스 마이어와 피터 린드버그, 스티븐 마이젤, 로버트 롱고 등 세계적인 사진가, 동시대 아티스트가 함께한 창의적 협업을 기념해 발간됐다. 정제된 우아함과 최상의 소재를 아름답게 해석해낸 결과물이 1천여 장의 사진에 담겨 있으며,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로 출판된다. 문의 02-3438-7682

톰 그레이하운드 시리즈 1 TO 10 스웻 컬렉션 톰 그레이하운드는 F/W 시즌을 맞아 '시리즈 1 TO 10 스웻 컬렉션'을 한국에 독점 론칭한다. 각 숫자의 무드에 맞는 단어와 그와 어울리는 10가지 컬러로 선보였던 '시리즈 1 TO 10 스웻 컬렉션'에 버건디, 헤더 그레이 컬러를 추가했으며, 베이식한 디자인과 함께 여성들을 위한 크롭트 디자인도 선보인다. 10월 3일부터 전국 톰 그레이하운드 매장과 온라인 사이트(www.thehandsome.com)에서 구입 가능하다. 문의 02-3442-3696

아뜰리에 에르메스 〈믿음의 번식〉 전시 아뜰리에 에르메스는 아티스트 이수경의 전시 〈믿음의 번식〉을 도산대로에 위치한 아뜰리에 에르메스 전시장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 전시는 하나의 작업이 다음 작업으로, 그 작업이 또 다음으로 이어지면서 회화, 조각,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작가 이수경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펼쳐진다.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달콤하게 잠들어버린 순간을 포착한 '모두 잠든' 연작(2015)이 대표작이다. 9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아뜰리에 에르메스에서 감상할 수 있다. 문의 02-3015-3248

몽클레르 프렌즈 위드 유 컬렉션 몽클레르는 도쿄 긴자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 신진 디자이너 듀오 프렌즈 위드 유와 함께 컬렉션을 선보인다. 스노맨을 이용해 포인트를 준 유니섹스 티셔츠, 반복적인 패턴이 특징인 나일론 소재의 '퍼퍼 재킷(Puffer Jacket)' 등 디자이너 듀오의 유니크함을 더한 제품으로 가득하다. 10월 24일과 25일 양일간 도쿄 긴자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익스클루시브로 선보이고, 2016 F/W 시즌에는 전 지점에서 판매한다. 문의 02-514-0900

DVF 아라벨라 드레스 DVF는 홀리데이 시즌을 맞이해 '아라벨라 드레스'를 선보인다. 도트 패턴의 시스루 시폰 소재를 사용해 발랄한 느낌을 더했고, 리본 타이 네크라인과 복고풍 실루엣이 여성스러운 느낌을 연출한다. 색상은 블랙 도트 컬러로, 11월부터 국내 DVF 정식 매장에서 판매한다. 문의 02-3442-7114

센존 리본 아이래쉬 스트라이프 스윙 코트 센존은 한국 고객들만을 위한 '리본 아이래쉬 코트'를 선보인다. 이 코트는 한국 고객들이 선호하는 엉덩이를 덮는 기장으로, 센존의 트위드 기술과 함께 메탈과 네이비색 원사를 사용해 포인트를 주었다. 전국 센존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79-1786

FASHION

JEWEL

브레게

반클리프 아펠

몽블랑

리차드 밀

브레게 트래디션 오토매틱 레트로그레이드 세컨드 핸드 7097 브레게는 2015 바젤월드 신제품 '트래디션 오토매틱 레트로그레이드 세컨드 핸드 7097'을 국내에 출시한다. 트래디션 오토매틱 컬렉션 탄생 10주년을 맞아 선보인 신제품 중 하나인 이 제품은 아주 작은 부품까지 아름답게 장식한 무브먼트를 다이얼에 드러낸 것이 특징이다. 케이스는 18K 로즈 골드와 화이트 골드 중 선택 가능하다. 문의 02-6905-3571

반클리프 아펠 빈티지 알함브라 슬린 펜던트 반클리프 아펠은 2015 홀리데이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빈티지 알함브라 슬린 펜던트'를 선보인다. 정교한 비즈 세팅과 핑크 컬러의 세브르 포슬린 알함브라 모티브로 장식했다. 모티브 중앙에는 투명한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각 소재가 조화를 이룬다. 펜던트 뒷면에는 인그레이빙 서비스를 통해 더욱 특별한 의미를 담을 수 있다. 문의 02-3479-6032

몽블랑 보헴 문가든 컬렉션 몽블랑은 아름다운 달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문페이즈 기능의 '몽블랑 보헴 컬렉션'을 새롭게 소개한다. 18K 레드 골드 베젤은 78개의 웨셀턴 다이아몬드로 장식해 눈부신 광채를 발한다. 6시 방향에 문페이즈 창을 배치했으며, 실버 화이트 컬러의 기요셰 다이얼에 90면 커팅 기법의 플로럴 아라비아숫자를 표시하고 18K 레드 골드로 도금한 핸즈는 잎사귀 모양으로 디자인해 우아함을 더했다. 문의 02-2118-6053

리차드 밀 뚜르비용 RM 26-02 리차드 밀은 강렬한 이블 아이를 표현한 '뚜르비용 RM 26-02'를 소개한다. 칼리버 중앙에 자리 잡은 이블 아이는 불꽃과 눈 문양을 섬세하게 수작업으로 새기고, 그랑 퓌 에나멜 기법을 통해 깊이감을 더했다. 블랙 TZP 세라믹 소재로 제작한 RM 26-02 모델은 25점을 생산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전 세계 25곳의 리차드 밀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2-2230-1288

펜디 타임피스 마이웨이 컬렉션 펜디 타임피스는 화려한 퍼 장식이 돋보이는 '마이웨이 컬렉션'을 새롭게 선보인다. 정교한 곡선 형태의 케이스에 탈착 가능한 풍성한 퍼 장식을 매치했다. 이전 가죽 스트랩에서 메탈 브레이슬릿 버전으로 출시해 화려함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 펜디 타임피스 마이웨이 워치는 전국 갤러리어클락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284-1300

불가리 디아고노 마그네슘 불가리는 초경량 신소재를 사용한 도시적인 디자인의 '디아고노 마그네슘'을 새롭게 선보인다. 불가리 워치의 상징인 41mm 스틸 케이스, 로고를 각인한 세라믹 베젤에 기존보다 얇은 워치 라인을 적용했다. 거기에 항공기에 사용하는 초경량 신소재 폴리머픽을 사용해 뛰어난 강도와 안정성이 특징이다. 컬러는 브라운, 딥 블루, 블랙, 실버 그레이 등 4가지 버전으로 출시한다. 문의 02-2056-0171

펜디 타임피스

불가리

아모레퍼시픽

미우미우

아모레퍼시픽 안티에이징 컬러 컨트롤 쿠션 디럭스 아모레퍼시픽은 프리미엄 쿠션 팩트 '안티에이징 컬러 컨트롤 쿠션 디럭스'를 출시한다. 스킨케어 기능을 더한 안티에이징 컬러 컨트롤 쿠션의 대용량 제품으로, 촉촉함과 윤기 있는 피부 표현을 위한 내추럴 라인과 커버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커버 라인으로 구성되며 커버 라인은 100호 커버, 102호 커버 등 2가지 색상으로 이루어졌다. 문의 080-020-5757

미우미우 미우미우 향수 미우미우는 2016 크루즈 컬렉션 쇼에서 첫 향수인 '미우미우 향수'를 공개했다. 레이디 살롱 느낌의 파우더 룸에서 공개된 이 향수는 미우미우의 상징인 마테라쎄 패턴을 입은 파스텔 블루 컬러의 병에 동그란 레드 컬러 캡이 발랄한 느낌을 준다. 흙냄새를 풍기는 베이스에 은방울꽃의 향기를 더해 여성스러움과 우아함을 동시에 선사한다. 문의 02-3218-5331

조 말론 런던 미모사 앤 카다멈 조 말론 런던은 가을을 맞이해 보헤미안 트렌드를 대표하는 향 '미모사 앤 카다멈'을 활용하는 향 레시피를 공개했다. 피오니 향을 두 번 펌핑하고 미모사 향을 한 번 펌핑하면 페미닌한 향을, 블랙베리 향을 한 번 펌핑하고 미모사 향을 두 번 펌핑하면 중성적인 매력을, 잉글리쉬 페어 보디 크림에 미모사 향을 두 번 펌핑하면 자연스러운 내음을 만끽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향을 믹스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조화로운 향이 매력적이다. 문의 02-3440-2750

톰 포드 뷰티 베네시안 베르가못 톰 포드 뷰티는 우아하고 상쾌한 향의 '베네시안 베르가못'을 출시한다. 톰 포드가 직접 이탈리아 남부를 여행하며 받은 영감을 향수에 담아냈다. 상쾌한 시트러스 톱 노트로 시작해 페퍼우드, 로스티드 통카 향의 베이스 노트로 마무리된다. 문의 02-3440-2760

클라란스 하이드라 퀀치 에멀전 SPF 15 클라란스가 베스트셀러 수분 라인 하이드라 퀀치의 새로운 데이 제품인 '하이드라 퀀치 에멀전'을 제안한다. 오로지 한국 여성만을 위해 개발한 이 제품은 카타프레이 추출물이 피부 깊숙한 곳부터 수분을 채워주며 석류 추출물이 습도와 열로 손상되기 쉬운 피부를 보호하고 모공 수축에 도움을 준다. 또 오가닉 선 스크린을 함유해 UVA와 UVB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것이 특징. 가볍고 상쾌한 질감 역시 단연 으뜸이다. 전국 클라란스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80-542-9052

조 말론 런던

톰 포드 뷰티

클라란스

BEAUTY